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논문

#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풍 소 만

#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A study on 「Im sangguk buja samchwigi」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풍 소 만

#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지도교수 엄태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풍 소 만

풍소만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이상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길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엄태식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    |
|----------------------------------|----|
| ABSTRACT .....                   | Ⅲ  |
| Ⅰ. 서론 .....                      | 1  |
|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검토 .....           | 1  |
| 2. 연구방법 .....                    | 3  |
| Ⅱ.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지와 경개 .....      | 5  |
| 1.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지 .....          | 5  |
| 2.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경개 .....          | 6  |
| Ⅲ.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 배경 .....       | 13 |
| 1. 중국 역사 정난지변(靖難之變)의 수용 .....    | 13 |
| 2. 조선 후기 소설의 영향 .....            | 16 |
| Ⅳ.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결연 양상과 그 의미 ..... | 20 |
| 1. 임홍과 요씨·주운화·설씨의 결연 .....       | 20 |
| 2. 임자명과 위운빙·정씨·경씨의 결연 .....      | 28 |
| 3. 기타 인물의 역할과 특징 .....           | 35 |

|   |    |
|---|----|
| V.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br>..... | 44 |
| VI. 결론 .....                            | 48 |
| <참고 문헌> .....                           | 51 |

## ABSTRACT

Xiaoman Feng

Advisor : prof. Eom Taesik,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m sangguk buja samchwigi」 belongs to a work that is not yet widely known not only among the general public but also among classical novel researcher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ork comprehensively.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alyze 「Im sangguk buja samchwigi」, we first examine the bibliography and development of the work, then examine the creative background of the work, and finally grasp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work focusing on the character's marriage. and to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novel.

This work is a Chinese novel whose author and creation date are unknown, and although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was briefly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it was limited to mentioning general facts. As a result of my review, only a Chinese version of this work has been found at present, but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Korean version exists in the context of various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Im sangguk buja samchwigi」 has been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and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work in more detail with reference to it. 「Im sangguk buja samchwigi」 is set in the early stage of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in China, and the historical situation at that time was examined.

Since 「Im sangguk buja samchwigi」 was writt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mus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novels that existed at that time. First,



among the novels of the Joseon Dynasty, the influence of historical novels based on the Jeongnan disaster in China was examined. Next, in 「Im sangguk buja samchwigi」, the son Im Ja-myung welcomes three wives, and some conflict is detected between the three wives. Here, the influence of family novels can be confirmed. 「Im sangguk buja samchwigi」 is similar to a family novel of the wife-in-law, but the conflict does not spread in detail.

The aspect of marriage between the father and son Lim Hong and Im Ja-myung, who are the main characters of 「Im sangguk buja samchwigi」, was examined, and the internal roles and meanings of existence of other people around them were review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im Hong (任弘) and the Yo clan (姚氏), Zhou Unhwa (周雲華), and Seol (薛氏) was investigated. On the other hand, in 「Im sangguk buja samchwigi」, in addition to these central figures, various auxiliary figures appear. Among them, we focused on Wi Zaran (魏紫蘭) and Lim Sanchu (任山秋) and examined their internal rol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Im sangguk buja samchwigi」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it i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readers through takeover marriage. The combination of Im Ja-myung and Baek-gu is a very rare narrative method in classical novels. The cross-breeding pixel shows a mythical character. The fact that the author of 「Im sangguk buja samchwigi」 created with such imagination seems to have been sufficient to attract readers' interest. Second, it is the pixel of the same bed in the first meeting between a man and a woman. Although Wi Ja-ran accepts Im Ja-myung's earnest persuasion and achieves psychological sympathy, she strongly refuses to sleep physically for ethical reasons. The author embodies Im Ja-myung as a Pungryu Namah, and here it can be seen that it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of the natives. As discussed above, 「Im sangguk buja samchwigi」 shows a unique narrative to be found in other classic novels, and this i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Im sangguk buja samchwigi」.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검토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는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소설이다. 이 소설은 명(明)나라의 임홍(任弘)·임자명(任子明) 부자가 모두 명나라 승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세 명의 부인을 맞아들이는 과정을 차례로 서술한 작품이다. 현재 이 소설은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해외 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조재현과 김수연의 선행 연구가 있으며, 한의송의 논문에서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 관한 연구는 조재현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삼취(三娶)’라는 결연방식(結緣方式)을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으면서도 남녀 간 애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사가 전개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임상국부자삼취기」가 남녀 간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듯하지만, 실은 임홍과 주운화를 시발점(始發點)으로 하여 임씨 가문의 성쇠를 그리는 일대기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임홍·주운화의 결연 및 임자명·백구의 결합에 주목하여,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자는 왕건 관련 신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으로 내려온 임산추가 임씨 가문의 유구한 전통과 훌륭한 혈통의 결과물임을 설득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중화귀인(中華貴人)과의 결연 및 기이한 존재[이물]와의 결연이라는 고려 왕조 신화의 서사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효 윤리와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를 근간으로, 한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에서 점차 다문화 가문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있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sup>2)</sup>

김수연은 수조신화(獸祖神話)에 주목하여 작품을 연구하였다. 조선 시대에 금기시된 상

1) <http://kostma.korea.ac.kr/>

2)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51쪽.

상력 중 하나는 개를 조상으로 삼는 수조신화인데 「임상국부자삼취기」에 개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인물이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조합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월경(越境) 서사와 신화적 인수교혼(人獸交婚) 모티프를 차용하여, 조선 여인의 아들로 명나라 최고 가문을 잇게 하고 백구(白狗)의 아들로 조선 명문가의 시조가 되게 하였다고 했다. 김수연에 의하면 이 작품은 일종의 패러디 서사인데, 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몸 섞기’로, 이는 육체에 새겨진 위계와 차별의 경계를 지우는 행위이며, 중국과 조선, 인간과 동물의 몸을 섞는 이중의 서사는 ‘경계적 몸’을 지닌 작가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현하고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이 작품의 패러디는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적 몸’을 사회에 허용되는 육체로 서사화하려는 자기서사 구축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한익송에 따르면 「임상국부자삼취기」의 핵심은 아버지인 임홍과 그의 아들인 임자명이 각각 세 번의 결혼을 하는 것에 있다. 즉 대를 이은 복수의 결혼담을 통해 가족의 구성과 확장이 서사의 중심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아들 임자명의 결혼이다. 부인들 사이에는 계급적 차이에 의한 권력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한 남성에 대한 관심을 둘러싸고 ‘질투’라는 매개를 통해 권력의 위계가 순간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부인들의 태도와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임자명의 형상은 이 지점에서 위계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부인들의 감정적 반응과 하소연을 모른 척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임자명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바로 가족 내 권력 구도라 할 수 있는데,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내 권력 구도는 여성들 간의 응집을 유도하여 저항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들 간의 갈등과 부조화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형태로 강제해 나가는 힘으로 작동한다. 물론 갈등과 부조화 문제 역시 전면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봉합되는 양상으로 해결되는데 여성들이 문제를 인식하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것에서 확인된다.<sup>4)</sup>

이상으로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이물 교혼이란 특정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주목했을 뿐,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상국부자삼취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 김수연, 「육체의 경계 지우기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패러디와 자기서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91~221쪽.

4) 한익송,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서사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7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20, 285~289쪽.

작품의 서지와 경개, 창작 배경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결연 양상 및 작품 내적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일반인은 물론 고전소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품에 속하며, 선행 연구 논문도 3편에 불과하다. 그뿐 아니라 이 소설은 여러 방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고전 소설들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대한 기초 연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작품의 서지와 경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결연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소설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작품의 경개를 서술한다. 이 작품은 작가 및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는 한문 소설로, 선행 연구에서 간략히 서지 사항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런데 필자가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은 애초에 한문으로 창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경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작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명나라 초기의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다. 따라서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 고전소설의 경우, 특히 통속적 국문소설은 관습적으로 중국을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문 장편소설이나 한문 소설의 경우는 중국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 더구나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정난지변’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명나라 초기의 실존 인물들도 언급되고 있는 만큼, 명나라 초기의 역사적 상황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정난지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소설들도 창작되었다. 이 역시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주인공인 임흥·임자명 부자가 세 부인을 맞이하는 결연의 양상을 살펴보고, 기타 주변 인물들의 작품 내적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작품의 제목대로라면 애정 소설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내용에서는 주인공의 결연을 주요한 제재로 다루고 흥미를 높이는 가운데 임씨 가문 일대기적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화소들이 주인공의 일대기 속에 혼효되어 주변 인물을 통해 서사가 구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 형상화에 보조 인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찰함으로써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서사를 추동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이므로 당대 및 이전 시기 소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 고전소설의 어떤 양식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고전소설 중 그 어떤 작품과도 유사하지 않은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19세기 중편 및 단편 한문 소설사의 흐름 속에서 검토하여 소설사적 의미를 조명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다룰 자료는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한문 필사본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사진 촬영 자료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번역문은 조재현·엄태식이 공역한 것인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이다.<sup>5)</sup>

5) 조재현·엄태식 공역, 『임상국부자삼취기』. 이 책은 현재 출판을 위한 교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출판 예정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번역은 모두 이 책의 것을 가져온 것이며, 원문과 표점 역시 이 책의 것을 인용한다. 원문 인용 시 쪽수는, 원본 사진 자료에서 작품이 시작되는 곳을 1 쪽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 II.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서지와 경개

### 1.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서지

「임상국부자삼취기」는 한문 필사본 소설로,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청구기호는 '5973.49.2461'이며,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에는 '任相國三娶記 單'이라고 쓰여 있으며, 내제는 '任相國父子三娶記'로 되어 있다. 책의 형태를 보면, 1책(冊)에 무계(無界)·무어미(無魚尾)이며 크기는 세로 28.2cm, 가로 18.1cm이다. 분량은 44장[86면]이고, 한 면에 10행(行), 한 행에 20자(字)이며, 전체 글자수는 17,000여 자이다. 작품 원본 사진을 확인해 보면, 오자가 더러 있기도 한데, 사진본의 경우 선장(線裝)한 쪽의 글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 책으로 묶는 과정에서 선장한 부분과 글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진 탓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내용상으로 볼 때 수준 높은 한시(漢詩)와 전고(典故)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약간의 한문 지식을 갖춘 독자라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sup>6)</sup> 다만 현재는 한문본밖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문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를 살펴보면, 한글 발음은 같거나 비슷한데 한자가 서로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영락제(永樂帝)가 연왕(燕王)으로 있을 때 신하를 모아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신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임홍(任弘)·장현(張賢)·장옥(張玉) 3명이다. 장옥의 경우 전쟁에 나가 어이없이 죽어 나중에 영광스러운 관직을 얻지 못했다. 나머지 둘은 공을 이룬 뒤, 영락제에게 각각 좌승상(左丞相), 우승상(右丞相)의 벼슬을 받았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 처음에는 '장현(張賢)'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는 모두 다 '정현(鄭賢)'으로 바뀌어 나온다. 양자의 한자를 보면, '張'과 '鄭'은 매우 다르므로 필사 과정에서 한자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張'과 '鄭'의 한글인 '장'과 '정'으로 대입해 보면, 필사 과정에서 잘못 적

6)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53쪽.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한문 소설이라 하여 인명의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면, 선행 국문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역사적 사건인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언급하면서 ‘정난(靖難)’이 아닌 ‘정란(靖亂)’으로 적었는데 ‘難’과 ‘亂’은 발음은 유사하지만 한자가 다르다. 이는 국문본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요씨(姚氏)의 할아버지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영충(姚英忠)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 역사에서는 명나라 개국공신이자 명장인 요영충(廖永忠, 1323~1375)이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이경룡(李慶龍)은 건문제(建文帝) 때에 중용되어 벼슬이 좌주국(左柱國)에 이르렀던 이경룡(李景隆, 1369~1429)이다. 이경룡은 정난지변 때 주체를 토벌하려 갔다가 도리어 연전연패하고, 주체가 남경(南京)을 압박하여 공격하자 금천문(金川門)에서 적을 막았으나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실제 역사적 사실 및 실존 인물을 가져와 썼으면서도, 실제 역사의 그것과는 달리 한자의 발음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글자를 가져와 썼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전하는 「임상국부자삼취기」는 국문본이 저본이었으며 이를 한문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2.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경개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명(明)나라 건국 초기 북평(北平)에 사는 임홍·임자명 부자가 각각 출셋길을 달리는 가운데 세 명의 부인을 맞아들이는 과정을 차례로 서술한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임홍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임자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 단락을 간단하게 정리한 바 있지만,<sup>7)</sup> 여기서 보다 자세히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중국 명나라 영락 황제의 신하 임홍은 어렸을 때 아버지 임운광(任允光)이 죽은 뒤 어머니 위씨(魏氏)와 꾸준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0세에 이르러德行과 재능이 뛰어나 향당에서 높은 명성을 누렸다.

7)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53~257쪽.

2. 임흥은 신하가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대사면을 실시하였다. 그는 23세의 나이에 우승상(右丞相) 무정후(武亭侯)에 제수되었다. 임흥이 요영충(姚英忠)의 손녀 요씨와 결혼하였는데, 요씨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 임흥은 국가의 일이 어렵다는 핑계로 재혼하지 않았다.
3. 영락 2년,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려고 하자 임흥이 사신을 자청하니 황제가 응낙하였다. 임흥은 병부시랑 위무(魏武), 한림학사 양우경(梁遇敬)과 함께 사신으로 갔다. 임흥은 주형선(周衡善)을 만나 결의하여 형제 관계를 맺었다. 하루는 임흥이 주형선의 관복을 보고 주형선에게 총명한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꿈에서 신인이 나타나 조선의 주씨집에 천생배필(天生配匹)이 있다고 말하였다. 임흥이 자청하여 조선까지 와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간청하였다.
4. 임흥은 조선 왕을 배알하여 주형선의 딸과 결혼할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임흥은 조선 왕의 허락을 얻고 양우경을 중국에 보내 결혼 사실을 알린 후에 주형선의 딸 주운화(周雲華)와 결혼하였다. 영락 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황금과 벽옥, 비단 등을 보내고 주운화를 의현부인(義賢夫人)에 봉하였다. 오월 초순 결혼식 날에 조선 왕이 결혼식에 참여한 후, 임흥과 주운화에게 관사를 지어 주고 전답과 노비 칠백여 명을 하사하였다.
5. 임흥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주운화에게 함께 중국으로 가기를 청하였다. 주운화는 임흥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외동딸이므로 부모와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6. 임흥은 주운화의 편지를 보고 나서 매우 상심하였다. 2월에 어머니 외씨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임흥은 어머니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였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이를 안 영락 황제가 어사(御史) 설흠(薛欽)의 딸 설씨와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리자, 임흥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였다.
7. 어느 날 임흥이 위무의 막내딸 위운빙(魏雲嬙)을 보고 나중에 아들이 임자명은 조선에서 오면 결혼시키기를 청하여 명주에 “훗날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맹세의 말을 적은 후 각각 나누어 간직하였다.

8. 설씨가 주운화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임흥을 보고 황제에게 말미를 청하여 조선으로 가서 주운화를 설득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임흥이 황제에게 조선으로 가기를 청하여 허락받았고 매우 기뻐하였다. 근데 갑자기 중병이 들어 병세가 날로 더욱 심각해졌다. 집안 식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 임흥은 이별시 10수를 지어 설씨에게 맡긴 후 조선의 주운화와 아들에게 전해주기를 당부하고 3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설씨가 매우 슬퍼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려 하자 마침 시비가 발견하여 구해냈다. 설씨가 마음을 고치고 조선에 있는 주운화에게 임흥의 부고와 유시(遺詩)를 전해 주었다.
9. 그때 주운화가 꿈에 임흥을 만나고 일어나 마음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아 전신에 식은 땀을 흘렸다. 이때 설씨가 보낸 부고를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주상서(周尙書) 부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동시에 병을 얻어 한날 세상을 떠났다. 주운화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아들 임자명과 삼년상을 치렀다.
10. 세월이 덧없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임흥의 친구인 원필(元弼)이 조선에 와서 임자명을 만나고 함께 중국으로 가자는 생각을 전달하였다. 주씨와 임자명은 중국 옥화궁(玉華宮)으로 가서 설씨와 만나 눈물을 흘렸다. 영락 황제는 임자명을 보고 뛰어난 덕행과 재주를 사랑하여 몇 년 후에 15세가 되면 벼슬을 주기로 하였다.
11. 천자가 이부(吏部)에 하조(下詔)하여 자명이 15세가 되기를 기다려 특별히 관작(官爵)을 내리게 하고 두 부인에게는 금은과 양식을 하사하니, 천은이 망극하였다. 위상서가 직접 와서 두 부인에게 문안하고 임자명과 상견(相見)하니, 첫눈에 임자명이 준걸임을 알 수 있었다. 상서가 집으로 돌아가 임자명이 15세가 되기를 기다려 약속을 지켜 성혼(成婚)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무가 문득 중병을 얻어 병세가 날로 점점 위중해지자 부인 정씨(鄭氏)와 딸 위운빙(魏雲娉)에게 임흥과의 맹세를 반드시 지키고 3년 후에 그와 결혼하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12. 천자가 임자명의 나이가 이미 15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벼슬을 내리려 하였는데 마침 과거가 있어 2등을 하니, 천자께서 매우 기뻐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하였다. 임자명이 사은하고 나와 상국의 영위(靈位)에 배알하니, 눈물이 흘러 옷이 젖

었고 두 부인도 비통함이 배나 더하였다.

13. 임자명이 15세에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자 영락 황제가 기뻐하며 한림학사에 제수하였다. 태사 두연(杜延)이 위운빙의 명성을 듣고 당세에 견줄 자가 없으니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려고 위무의 큰아들 위숙(魏淑)을 만나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꾀었다. 임자명의 사람됨이 어린 나이에 일찍 영달하여 지기(志氣)가 교만한데다가 청수(淸粹)하기까지 하여 속세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니,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다. 정씨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치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지난날 맹세를 어기려 하자 주운화와 설씨는 다른 집안에 혼처(婚處)를 구하려 하였다.
14. 임자명이 3월에 산택으로 유람을 나갔다가 화세교(華世橋) 가에 이르렀을 때, 문득 맑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보니 거문고 소리는 가냘프고 음조는 처절하였다. 임자명이 춘흥(春興)에 취하여 담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엿보았다. 한 부인이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고 곁에는 한 소저가 있었는데 멀리서 살펴보니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에 솟는 듯하고, 가까이서 바라보니 부용(芙蓉)이 맑은 못에 피어난 듯하였다. 임자명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다.
15. 잔치에서 거문고를 타던 시비 위자란(魏紫蘭)에게 발견되었다. 임자명은 돌아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위자란의 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세미녀들이 정현(鄭賢)의 딸과 위운빙임을 알게 되었다. 임자명은 위자란에게 밤이 이미 심었으니 잠시 쉬었다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다. 임자명이 이렇게 유인(誘引)한 것은 위자란과 먼저 좋은 연분을 맺고 이후에 소저를 도모하려는 계책이었다. 이날 밤 마침내 위자란과 동침하였다.
16. 임자명은 다음 날 위자란의 방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황망한 가운데 왔던 길을 잃고 정현의 아내 석씨(石氏)의 침방 밖에 이르니, 석씨의 시비들에게 붙잡혔다. 임자명이 도적으로 몰려 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위자란이 석씨에게 임자명의 정체를 밝히고 위운빙이 임자명과 파혼한 전말을 설명한 까닭에 무사히 풀려났다.
17. 석씨는 임자명을 보고 뛰어난 기개를 사랑하여 더없는 기쁨을 느꼈다. 부인 석씨에

게 다만 미혼인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 석부인은 임자명의 영풍(英風)과 기상(氣像)이 나라에서 짝이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을 보고 사위로 삼기 위하여 위운빙의 어머니 정씨에게 찾아가 이 결혼을 주선하여 위운빙과 정씨를 모두 임자명과 결혼시키겠노라고 이야기하였던바, 이로 인해 임자명은 위운빙과 정씨를 한꺼번에 부인으로 맞이한다.

18. 이때 위자란(魏紫蘭)은 임자명과 하룻밤 맹세를 한 후로 인사(人事)가 변하고 몸은 시녀의 반열에 있는지라, 한 글자의 소식을 전할 길조차 영영 끊겨 마음으로 매우 한스러웠다. 임자명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하여 장차 병이 나게 되었다. 위자란은 그리워하는 마음을 옥소로 붙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임자명은 위자란을 불러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19. 정씨는 임자명과 위자란이 동침한 일을 발견하여 위자란이 음탕하다며 벌주려 하였으나 위운빙의 만류로 그만두고, 위자란을 임자명의 시첩으로 들였다. 당시에 위운빙과 정씨는 같은 달에 각각 아들을 낳아 임양원(任陽元)·임자원(任次元)이라 이름 지었다.
20. 임자명이 친구 장택(張澤)·손경(孫敬)과 함께 악주(岳州) 동정(洞庭)으로 유람을 가려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둘째 부인 정씨는 임자명에게 동정호에 가면 선녀 한 명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선녀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이라는 것이다. 임자명은 웃으면서 부인에게 꿈속의 헛된 일을 믿을 수 없고 비록 항아(姮娥)가 내려오더라도 그의 부부의 은정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1. 임자명과 친구들과 출발하여 산속에 은거하며 지내던 전조 어사 경윤(慶允)의 아들을 만났다. 소년이 “어젯밤의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경윤이 나타나 임상서 자명이 반드시 여기에 올 것이니 우리 딸의 배필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임자명은 어쩔 수 없이 경윤의 딸과 혼례를 치르고 돌아왔다. 주운화가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산간요물(山間妖物)을 들였다고 몹시 화를 내니, 정씨와 위운빙이 설득하여 경씨를 맞아들이라고 권유하자, 주운화가 허락했다. 이어서 경씨가 집안으로 들어와 아들 임계원(任季元)을 낳았다.

22. 하루는 황후 서씨가 임자명의 세 부인이 절세의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고 싶고 황제의 허락을 받아 액태지(太液池)에서 그녀들을 비롯해 모든 외명부를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경탄하였다. 위운빙은 3남 3녀, 정씨는 2남 2녀, 경씨는 5남 5녀를 낳아 행복하게 사니,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23. 임자명이 중병이 들자 산천을 유람하며 조병(調病)하였는데, 유람 중 만난 소년의 인도로 기린산(麒麟山) 추월동(秋月洞)으로 가서 정공을 만났다. 정공은 임자명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고는, 화하 청려선생에게 보내 '백구(白狗)'를 빌려오게 하였는데, 그것과 친압(親狎)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24. 임자명이 그 말대로 하여 병을 완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임자명에게 10자 10녀가 있었는데, 다섯 아들은 모두 과거를 보아 벼슬에 올랐으며 집안의 영화가 대단하였다. 영락 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 태자가 황위에 오르자, 임자명은 벼슬을 그만두었다.
25. 세월이 흐른 후 임산추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바로 백구가 낳은 아들이었다. 이로 인해 임자명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였다. 임자명은 임산추를 조선으로 보내 외조부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이에 임산추가 조선으로 가 봉천궁을 보살피고 흠어진 노비와 전답을 수습하여 제사를 받들었다. 임산추가 건너오자 조선에서는 임자명의 아들이라 하여 존중하였다. 임산추는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여 공을 세우고 병마절도사가 된 후 8자 4녀를 낳아 조선에 새로운 임씨 가문을 번성시켰다.
26. 황제가 죽고 의종(宜宗)이 즉위한 후에 고지(高芝)가 군대를 일으켜 반역하였는데, 양원, 차원, 계원이 대장이 되어 적괴를 사로잡았다. 천자가 가상히 여겨 양원을 선주군(宣州郡) 태사(太師)에 봉하고, 차원은 운정군(雲亭郡) 태사에 봉하고, 계원은 성의백(誠意伯)에 봉하였다. 이때 양 부인이 무궁한 영화를 누리다가 설부인이 문득 세상을 떠났다. 임자명은 3년상을 치른 후 추월동으로 들어가 세월을 보냈다. 조만간 정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7. 이때 선종(宣宗)이 돌아가시고 중종(中宗)이 즉위하였다, 양원 형제가 사직하고 추월동으로 은거하였다. 위운빙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자 임자명이 몹시 슬퍼하였는데 꿈에서 무산선녀(巫山仙女)가 된 정씨와 위운빙을 만나 다음과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었다. “정씨와 위운빙은 원래 무산선녀였는데 요지(謠池) 반도연(蟠桃宴)에 참석하였다가 정씨가 복숭아 하나를 몰래 훔쳐 위운빙에게 주었기 때문에 옥황대제(玉皇上帝)에게 벌을 받아 현실계에서 함께 있게 된 것이다. 임자명은 곤륜산(崑崙山)의 선자(仙子)였고, 경씨는 봉래산(蓬萊山) 선자였기에 전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
28. 그 후 승상이 나이 80세, 경씨는 나이가 76세에 이르러, 3월 답청(踏青)일에 갑자기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자 추월동에 장사지냈다. 자손들은 명예와 현달을 구하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중에서 생을 마쳤다.

### Ⅲ.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창작 배경

#### 1. 중국 역사 정난지변(靖難之變)의 수용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중국의 명(明)나라 건국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당시 역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朱元璋)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원장은 태자 보다는 연왕(燕王)의 자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태자도 연왕의 자질과 소문으로 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연왕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했지만, 홍무(洪武) 25년 4월, 황태자가 병으로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연왕의 위치가 확고해졌다. 하지만 유삼오(劉三吳)의 ‘법통의 중요성’ 간언으로 홍무 25년 9월에 황손 주윤문(朱允文)을 황태손으로 삼았다.

홍무 황제 주원장의 태자 주표는 요절하였기 때문에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주표의 아들이자 주원장의 손자인 혜제(惠帝: 건문제)였다. 홍무 31년(1398년) 윤달 5월 10일 태조 주원장이 죽고, 황태손 주윤문이 즉위하여 건문제(建文帝)가 되었다. 가까운 신하들의 말에 따라 주원장의 집권 정책을 계승하여 여러 영주들을 비롯한 지방 제후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억압책을 취했다. 특히, 그들이 지닌 군사력을 감축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sup>8)</sup> 건문제는 즉위했으나 숙부인 연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황자충(黃子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왕을 중심으로 한 제왕들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삭번(削藩)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건문제는 연왕에게 반역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왕과 동모제(同母弟)인 주왕(周王) 주숙(朱櫨)을 포함하여 민왕(岷王) 주편(朱楨), 상왕(湘王) 주백(朱柏), 제왕(齊王) 주부(朱樞)등을 모함하여 제거했다. 하지만, 연왕은 건문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력충돌 직전이었지만, 북평 연왕에게는 개전할 만한 대의명분이 없었고, 남경(南京)의 정부측이 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몽골의 침입을 명분 삼아 연왕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음모를 꾀한 것을 빌미 삼아 건문제는 연왕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 연왕은 군사를 일으켰다.

8) 遺詔曰: ‘膺天命三十有一年, 憂危積心, 日勤不怠, 務有益於民. 奈起自寒微, 無古人之博知, 好善惡惡, 不及遠矣. 今得萬物自然之理, 其奚哀念之有. 皇太孫允炆仁明孝友, 天下歸心, 宜登大位. 內外文武臣僚同心輔政, 以安吾民. 喪祭儀物, 毋用金玉. 孝陵山川因其故, 毋改作. 天下臣民, 哭臨三日, 皆釋服, 毋妨嫁娶. 諸王臨國中, 毋至京師. 諸不在令中者, 推此令從事.’(『明史』太祖本記)

연왕은 건문제의 연호인 ‘건문’을 폐지하고, 태조의 연호인 ‘홍무’로 개칭하였다. 새로운 군제를 채용하는 한편, 대의 명분을 위하여 거병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물론 그의 목적은 실상 정권의 탈취였다. 연왕은 근거지인 북평을 제압하고 통주(通州) 및 계주(薊州) 방면으로 진격하고 거용관(居庸關)을 점령하여서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였다.

정부군 50만이 북평으로 복진해왔지만, 정부군 사령관인 이경룡(李景隆)의 우둔함으로 50만 대군은 패주하게 되었다. 또다시 이경룡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백구하(白溝河)에서 연왕과 결전을 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패주한다. 북평에서 나온지 수개월이 지나자 연왕군의 군사는 지침이 역력했다. 그리하여 연왕군은 북평으로 회군하고 정부군은 연왕군을 추격하여 덕주(德州)등을 재탈환하였다.

연왕은 다시 건무 2년 12월 군사를 일으켰으나 크게 패하고, 건무 3년 2월 다시 남하를 강행하여 호타하(滹沱河)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연왕은 개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장강(長江)을 건너 남경으로 진격하기로 맘을 먹고 서주(徐州), 숙주(宿州) 등에서 교전하여 승리를 거둔다.

1402년 7월, 연왕은 결국 수도 남경성을 포위하여 함락시켰다. 건문제는 남경의 궁전에 불을 지르라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건문제의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얼마 뒤에, 연왕은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명나라의 제3대 황제인 영락제이다.

이상으로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역사적 배경인 중국의 정난지변을 살펴보았는데, 작품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발견된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선종(宣宗)이 죽고 중종(中宗)이 즉위한 것으로 적고 있는데<sup>9)</sup>, 명나라 선종 다음의 황제는 영종(英宗)이고 중종이라는 황제는 없다.<sup>10)</sup>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정난지변과 관련된 실존 인물이 작품에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주인공 임홍(任弘)이다. 임홍은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중국 명나라 영락 황제의 신하이고 문장과 재능이 뛰어나 학당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과거에 급제하며, 태조 고황제(高皇帝)의 차자(次子)인 연왕(燕王)의 총애를 받고 북평에서 한림(翰林)이 되어 벼슬살이를 얻게 되었다.<sup>11)</sup> 태조가 죽자 태손 건문이 황위를 계승하고 조정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결국 연왕이 ‘정난(靖難)’을 일으켜 황제로 즉위한 뒤 연호를 영락(永樂)으로 고치고 공신(功臣)들에게 벼슬을 내렸다. 임홍은 23세

9) 是時宣宗已崩，中宗即位，宦者王真，專權擅斷.(「임상국부자삼취기」, 84쪽)

10) 양승민,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미국버클리대학교 소장 해제.

11) 太祖高皇帝，創業之後，爲燕王，定都北平。燕王就封，設科取士，任弘與焉，燕王甚敬愛之，弘亦隨事論諫，多所補益.(「임상국부자삼취기」, 1쪽)

의 나이에 정현(鄭賢)·장현옥(張玄玉) 등과 함께 공신에 책봉되어 우승상 무정후(武亭侯)에 제수된다.<sup>12)</sup> 그런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임흥에 해당하는 인물은 주능(周能)인 추측할 수 있다. 주능의 자는 사홍(士弘)이고, 여러 번 공을 세워 좌군 도독부 좌도독이 되었다. 영락 4년(1406), 영락제는 주능을 정이장군(征夷將軍)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서평후(西平侯) 목성(沐晟), 신성후(新城侯) 장보를 이끌고 안남을 정벌하게 하였다. 같은 해 10월, 주능은 지금의 광서 지방인 용주로 가고 군중에서 병사하는데, 당시 나이 37살이었다. 사후 동평왕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를 무열(武烈)이라고 하였다.<sup>13)</sup>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임흥은 명나라의 주능(周能)로 추정된다. 임홍(任弘)이라는 이름과 주능의 자 사홍(士弘)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능은 ‘정난지변(靖難之變)’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임흥은 실존 인물 주능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작품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는 인물인 장옥(張玉)으로, 그는 명 태조 홍무제 주원장의 총신(寵臣) 중 한 명이었다. 장옥은 원래 원나라 추밀지원(樞密知院)이었는데, 나중에 명나라에 투항해 여러 번 공을 세웠고 연산좌호위지휘첨사(燕山左護衛指揮僉事)가 되어 연왕의 휘하에 들어갔다. 그는 용맹하고 지혜가 많으며 계책에 뛰어났기 때문에 연왕에게 점점 중용되었으며, 정난지역(靖難之役) 때 북평 구문을 탈취하여 도지휘첨사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연군선봉(燕軍先鋒)이 되었는데 당시 연군의 여러 장수 가운데, “장옥은 계책에 꾸미는데 뛰어나고, 주능은 전투에 뛰어나다.[張玉善謀, 朱能善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sup>14)</sup> 건문 2년 12월(1400년), 장옥은 동창(東昌) 전투에 참가하고, 주체를 구하기 위하여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당시 나이 58세였다.<sup>15)</sup> 영락 연간에 영국공(榮國公)으로 추봉되고, 충현(忠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연왕은 그를 두고 “정난 때 공로는 마땅히 장옥이 제일이다.”라고 평했다. 홍희 원년(1425) 3월, 장옥을 하간왕으로 추봉하고, 시호는 충무(忠武)로 고쳐, 태묘에 배향하였다. 그리하여 동평왕(東平王) 주능(周能), 금향후(金鄉侯) 왕진(王眞), 영국공(榮國

12) 建文棄位北走。燕王即位，大赦天下，改元永樂，賞爵諸功臣，以鄭賢爲左丞相，開元侯，任弘爲右丞相，武亭侯。(『임상국부자삼취기』, 2쪽)

13) 四年七月詔能佩征夷將軍印，西平侯沐晟爲左副將軍，由廣西，雲南分道討安南，帝親送之龙江。十月行次龍州，卒于軍。年三十七。敕葬昌平，追封東平王，謚武烈。(『明史』朱能傳)

14) 能於諸將中年最少，善戰，張玉善謀，帝倚爲左右手。(『明史』朱能傳)

15) 明年從攻廣昌，蔚州，大同。諜報景隆收潰卒，號百萬，且復至。玉曰：“兵貴神速，請先據白溝河，以逸待勞。”駐河上三日，景隆至。以精騎馳擊，復大敗之。進拔德州，追奔至濟南，圍其城三月，解圍還。尋再出，破滄州，擒徐凱。進攻東昌，與盛庸軍遇。成祖以數十騎繞出其後。庸圍之數重，成祖奮擊得出。玉不知成祖所在，突入陣中力戰，格殺數十人，被創死。年五十八。(『明史』張玉傳)



公) 요광효(姚廣孝)와 더불어 명성조 영락제에게 배향된 4명이 공신이 된다.<sup>16)</sup>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요영충(姚英忠)이다. 요씨의 할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영충(姚英忠)은 명나라 개국공신인 실존 인물 요영충(廖永忠)이다. 요영충(廖永忠)은 명(明)나라 초기의 무장(武將)으로, 일찍이 탕화(湯和)와 더불어 방국진(方國珍)을 토벌하고, 절동(浙東)·복건(福建)·광둥(廣東)·광서(廣西)를 평정했다. 명(明)나라가 하(夏)나라를 멸하는 과정에서 남로군(南路軍) 우부장군(右副將軍)이 되었다. 그는 파양호(鄱陽湖) 전투에서 탁월한 공을 세웠고, 덕경후(德慶侯)로 봉해졌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서문수장(西門守將) 이경룡(李慶龍)이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는 건문제 때에 중용되어 태자태부(太子太傅)·대장군(大將軍)·좌주국(左柱國) 등을 역임한 인물 이경룡(李景隆)이다.<sup>17)</sup> 정난의 난 때 주체를 토벌하러 갔다가 도리어 연전연패하고, 주체가 남경(南京)을 압박하여 공격하자 금천문(金川門)에서 적을 막았으나 결국 지키지 못했다.<sup>18)</sup>

이상으로 「임상국부자삼취기」에 수용된 정난지변에 대해 살펴보고 작품 속 등장 인물과 실존 인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요영충(姚英忠)과 이경룡(李慶龍)의 경우, 작품에서 한자를 잘못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국문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2. 조선 후기 소설의 영향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이므로 분명히 그 당시 존재했던 소설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조선 시대 소설 가운데 중국의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한국 소설 가운데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중국 역사의 한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실제 역사 사실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sup>19)</sup>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의 아들인 연왕(燕王)이 조카 건문제(建文帝)의 제위 찬탈 사건 정난지변이다. 특히 연왕이 조카

16) 洪熙元年三月，加封河間王，改諡忠武，與東平王朱能，金鄉侯王真，榮國公姚廣孝並侑享成祖廟廷。(『明史』卷一百四十五 列傳第三十三)

17) 燕王即帝位，授景隆奉天輔運推誠宣力武臣，特進光祿大夫，左柱國，增歲祿千石。(『明史』李景隆傳)

18) 燕師渡江，帝旁皇甚，方孝孺複請誅景隆。帝皆不問。使景隆及尚書茹瑺，都督王佐如燕軍，割地請和。燕兵屯金川門，景隆與穀王穗開門迎降。(『明史』李景隆傳)

19) 최윤희, 「육염기 연구」, 『고소설 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61쪽.

건문제를 폐위시키고 제위에 오르기 위해 일으킨 정난지변은 세조의 왕위찬탈을 경험한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락제의 제위 찬탈 사건인 정난지변을 배경으로 설정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던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난지변을 다룬 국문 장편소설로는 「삼강명행록(三綱明行錄)」, 「성현공숙렬기(聖賢公淑烈記)」, 「쌍렬옥소록(雙烈玉簫錄)」, 「쌍천기봉(雙鉤奇逢)」, 「옥호빙심(玉壺冰心)」, 「임화정연(林花鄭延)」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현공숙렬기」와 「옥호빙심」의 경우는 정난지변을 활용해 충절과 효 사이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서사를 보다 복잡하면서도 현실감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삼강명행록」과 「쌍천기봉」은 정난지변을 천명이라는 초월적 질서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정난지변과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갈등구조가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충절 등의 윤리적 문제도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쌍렬옥소록」과 「임화정연」은 정난지변을 활용해 주인공과 적대세력을 명확하게 나누었으며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해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켰다.<sup>20)</sup>

한중 고전소설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연구는 중국 고전소설과 한국 한문소설의 영향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한국 고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적인 발전상을 강조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소설 중에 한국에 수입된 「남계연담(南溪演談)」을 주목할 만하다. 내용은 명 초 개국공신 유기(劉基)의 생평(生平) 전기이다. 「남계연담」은 중국 연의소설 「황명전(皇明傳)」을 본전으로 둔 소설이다. 「皇明傳」은 군담 위주로 서사를 진행한 반면, 「남계연담」은 명 조정의 정치 판도를 조명했다. 「남계연담」은 본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겠다. 「남계연담」은 「황명전」이 보이지 못한 명 초 정치적 판도를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유기(劉基)를 중심인물로 택했다. 「황명전」과 달리 역사에서 유기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됐다. 유기와 그 후손에 주목한 한국 소설사적 흐름과 일치했다.<sup>21)</sup>

「육염기(六艷記)」는 정난지변과 그 사건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은 작품이다. 『명사(明史)』와 중국소설 「속영렬전(續英烈傳)」을 「육염기」와 비교해 보면, 「육염기」가 실존한 인물에 허구성을 가미하여 인물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육염기」는 ‘정

20)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古小說研究』 41, 2016, 336~337쪽.

21) 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7~35쪽.

난지변'과 그 사건을 둘러싸고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이다. 「육염기」의 구성적 특징은 서술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연왕과 건문제 측 그리고 정난지변에 대한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면적 이해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김수민이 1757년에 지은 「내성지(奈城誌)」는 공히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왕들인 조선 조 단종(端宗)과 명나라 건무제(建文帝)가 강원도 내성에서 양국의 충신열사들을 만나는 과정과 그들을 위해 베푼 연회를 김씨 성의 무명자(無名子)가 목격하는 것으로 된 몽유록 작품이다.<sup>23)</sup>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황명영락(皇明永樂)'이라는 시간에 설정되어 있다. 이때는 명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작가가 굳이 시간적 배경을 명말(明末)로 택한 이유는 오랑캐인 청나라가 명나라의 왕조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내성지」에서 가장 핵심 담론에 속하는 담론은 왕위찬탈 문제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인 작가의 찬탈에 대한 담론은 18세기 당대 역사적 토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이 작품이 찬탈의 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절을 선양하려 한 의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sup>25)</sup>

한편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아들 임자명은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데 세 부인 사이에 갈등이 일정 부분 감지된다. 첫째 부인인 위씨와 둘째 부인인 정씨의 경우 인척 관계에서 비롯된 화락함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둘을 제외한 여타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만을 드러내는 양상이 형상화된다.<sup>26)</sup> 이와 같은 처첩갈등이 있는 가정소설과 유사하지만 갈등이 구체적으로 다 확산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조선 시대 소설 가운데 처첩갈등을 소재로 한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를 살펴보겠다.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묘사하고 한 귀족 가정에서의 간략한 투쟁을 통해 봉건 궁중과 관장의 부패를 드러낸 소설이다. 「사씨남정기」는 처인 사씨와 첩인 교씨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상화되고 이들은 각각 처와 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립 속에는 봉건적 양반가정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사씨남정기」는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성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봉건적 처첩제도의 실상과 질곡을 일정하게 폭로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sup>27)</sup>

22) 최윤희, 「육염기 연구」, 『고소설 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60~84쪽.

23) 신해진, 「내성지의 창작동인 탐색」, 『국학연구론총』 1, 태민국학연구원, 2008, 150쪽.

24) 손종태, 「奈城誌의 창작배경과 역사담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61쪽.

25) 앞의 논문, 72쪽.

26) 한익승,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서사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286쪽.

27)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395쪽.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사씨남정기」같은 처첩형 가정소설의 영향이 감지된다.

## Ⅳ.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결연 양상과 의미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임홍(任弘)과 임자명(任子明) 부자가 각각 세 명의 부인을 맞이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임홍·임자명 부자의 결연이 이 작품의 중심 서사가 되므로, 이들의 결연 양상 및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작품 이해의 핵심이 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임홍과 요씨(姚氏)·주운화(周雲華)·설씨(薛氏), 임자명(任子明)과 위운빙(魏雲嬙)·정씨(鄭氏)·경씨(慶氏)의 결연 양상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이들 중심 인물 이외에도 여러 보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위자란(魏紫蘭)과 임산추(任山秋)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임홍·임자명 부자의 결연을 살펴본 뒤, 이들의 작품 내적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임홍(任弘)과 요씨(姚氏)·주운화(周雲華)·설씨(薛氏)의 결연

임홍은 요씨·주운화·설씨 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임홍의 첫째 부인은 요씨이다. 다음은 요씨와 관련된 내용이다.

임홍이 처음 장가들어 맞이한 요씨(姚氏)는 곧 요영충(姚英忠)의 손녀로 몇 년 만에 죽었는데, 임홍은 국사(國事)가 다난(多難)하였기에 다시 장가들지 못했었다.<sup>28)</sup>

작품 속에서 첫째 부인 요씨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다. 그저 간략하게 요씨가 요영충(姚英忠)의 손녀이고, 여러 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며, 임홍이 국가가 험난한 것으로 인하여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작품에서는 요영충(姚英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영충(姚英忠)은 역사적 실존 인물 요영충(廖永忠)이므로, 그 집안은 신분이 상당히 높은 벌열(閥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홍의 첫째 부인 요씨는 요영충의 손녀로 지위가 높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다. 한편 임홍은 우승상(右丞相)·무정후(武亭侯)에 봉해지고 23세의 나이로 경상에 이른다.<sup>29)</sup> 이를 보면 임홍과 첫 부인 요씨의 결연은 명

28) 任弘初娶姚氏，卽姚英忠之孫女也，數年而死，以國事多艱，尙未改娶.(「임상국부자삼취기」, 3쪽)

29) 燕王卽位，大赦天下，改元永樂，賞爵諸功臣，以鄭賢爲左丞相，開元侯，任弘爲右丞相，武亭侯，是時武

성과 권세가 비슷한 집안끼리의 혼인으로, 전통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

임흥의 둘째 부인은 주운화이다. 다음은 임흥이 주운화의 부인인 주형선(周衡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다.

임흥이 주형선의 관복(冠服)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관복은 방백 댁에서 만든 것입니까?” 주공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감탄하였다. “아름답도다! 형의 댁에 필시 이팔청춘의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흥이 크게 놀라 말했다. “있습니다.” 임흥이 말했다. “제가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재취(再娶)하고자 사방으로 구하여 보았으나 군데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한 꿈을 꾸었는데, 신인(神人)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배필은 조선 주씨 집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실로 이 때문이니, 국왕께 아뢰어 주씨 집안을 찾아 혼기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형의 따님이 아직 남에게 시집갈 때가 아님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용렬하다 하지 마시고 또 타국 사람이라 하여 꺼리지 마십시오. 그러신다면 응당 천자에게 주달하여 곧바로 혼례를 행할 것이니, 형께서는 고사(固辭)하지 마십시오.”<sup>30)</sup>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임흥은 꿈에서 신인(神人)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천정배필이 조선 주씨 집안에 있음을 알고 중국에서 조선까지 왔다. 임흥은 자신의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형선의 관복을 보고 그의 집에 반드시 이팔청춘의 여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이에 주형선은 크게 놀라 자기에게는 단지 딸 하나밖에 없고 이미 성혼(成婚)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임흥의 청혼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임흥은 신인이 그에게 지시한 것을 주형선에게 알려주고 간곡히 주운화와 결혼하기를 부탁하였는데, 주형선이 부득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임흥이 주형선에게 한 부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주운화를 자신의 운명적 배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임흥은 첫째 부인이 죽은 후에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흥의 신분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신인의 지시를 받은 천정배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왕이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과인이 어찌 마음대로 하리오? 그러나 성례하는

亭侯任弘，年二十三歲青春之年.(『임상국부자삼취기』, 2쪽)

30) 任天使，指衡善冠服曰：“此冠服，自方伯家造作耶？”周公曰：“然矣。”天使歎曰：“美哉！兄家必有二八女子也。”周公大驚曰：“有之。”任公曰：“賤生不幸，早年喪室，方欲再娶，求之四方，無一適意之處。偶得一夢，神人謂我曰：‘君之配匹，在朝鮮周家。’我之來此，宗爲此也。方告國王，尋得周家，欲成婚期矣。兄之女兒，時未適人，我已知之。幸勿以我爲庸陋，且勿以他國之人爲嫌，則當奏聞天子，即當行禮，兄勿固辭。”(『임상국부자삼취기』, 8쪽)

날에 응당 정을 표하겠소.”<sup>31)</sup>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황금 1천 냥, 백벽(白璧) 한 쌍, 금수채단(錦繡彩段) 몇 수레를 하사하고 주씨녀(周氏女)를 의현부인(義賢夫人)에 봉했다.<sup>32)</sup> 임흥이 대궐을 바라보며 사은하고 상사(賞賜)를 받으니 보화가 산처럼 쌓였다. 임흥이 국왕에게 아뢰었다. “이번 혼례에 천자께서 말미를 주시고 국왕께서 혼례를 주관하시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箕都)로 돌아가 길일(吉日)을 가려 혼례를 올리고 돌아갈 때 다시 사은하겠습니다.” 국왕이 흔쾌히 말하였다.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나로 하여금 혼인을 주관하게 하시니, 과인 또한 마땅히 함께 가서 혼례를 도울 것이오.”<sup>33)</sup> 길일은 바로 5월 초순(初旬)인지라, 남풍은 온화하고 날씨는 명량하였다. 천사는 납빙(納聘)한 뒤에 육례(六禮)를 갖추어 곧장 관사(館舍)로 향했다.<sup>34)</sup>

위의 인용문은 임흥과 둘째 부인 주운화와의 결혼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 남자 임흥과 조선 여자 주운화는 서로 다른 국적으로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왕을 주혼하여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의 여섯 가지 의식을 거쳐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나아가 중국 황제는 주운화를 의현부인(義賢夫人)에 봉했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 황제가 주운화에게 임흥의 아내로 되는 걸 찬성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사람의 결연은 처음에 꿈에서부터 신인이 지시를 받은 천정배필이 드러나 있다. 이는 국적이 다른 남녀의 결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임흥이 소저에게 말했다. “나와 소저는 각기 다른 나라에 살았으니, 삼생(三生)의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백년해로(百年偕老)할 수 있었겠소? 세월이 빨리 흘러 유한(有限)이 이미 다가왔으니, 한 번 중문에서 이별하면 곧 하수(河水)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될 것이오. 부디 진중(珍重)하시오.” 주씨가 용모를 가다듬고 대답하였다. “천자께서는 상국(上國)의 귀인이시고 소첩은 외국의 천한 여자입니다. 성혼하는 날부터 이미 이런 이별이 있을 줄을 알았으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한스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첩은 마땅히 망부석(望夫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이미 서너 달이 되었으니 해산하여 길러야 할 것입니다. 첩은 부모님의 외동딸이니, 생전에 어찌 차마 멀리 떠나겠습니까?”<sup>35)</sup> 임흥이 술잔을 들고 마시다가 한숨

31) 國王曰：“此是天緣，寡人何得擅斷？然成禮之日，當表下情。”(『임상국부자삼취기』, 10쪽)

32) 卽遣使臣，賜黃金一千兩，白璧一雙，錦繡彩段數車，封周女爲義賢夫人。(『임상국부자삼취기』, 11쪽)

33) 任弘望闕謝恩，受其賞賜，寶貨積如丘山，告于國王曰：“此婚，天子給暇，國王主婚，則必速成。還皈箕都，擇吉成禮，臨皈更謝。”國王欣然曰：“天子下詔，使我主婚，寡人亦當偕往以助婚儀。”(『임상국부자삼취기』, 12쪽)

34) 吉日乃五月初旬也，南風惠和，天氣明朗。天使納聘，後備六禮，直向館舍。(『임상국부자삼취기』, 13쪽)

35) 一夕相國謂小姐曰：“我與小姐，各在異國，若非三生宿緣，安得百年同歡？流光易射，由限已迫，一作重門之別，便作河水之隔。今欲挈往，而未知天子之意，是以未果。歸朝後，當上聞奉迎，玆重玆重。”周氏歛容對曰：“天使上國之賢人，小妾外國之賤女也。成婚之日，已知有此別，久矣，恨之何益？妾則當爲望夫石矣。腹中血肉，已至三四朔，待其解婉收養，可也。妾則父母之一女也，生前何忍遠離？”(『임상



을 쉬며 대답하였다. “애초에 일이 난처하다는 것을 제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천자의 뜻을 따르고 자 한다면, 이 인연을 마쳐야 할 뿐입니다. 또 부인에게는 삼종지의(三從之義)가 있으니, 방백께서는 인륜을 굽어 살피시어 내년 봄에 부인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저를 따르게 하십시오. 모르겠습니 다만 어떠하신지요? 저 또한 사신이 되어 다시 가겠다는 약속을 응당 실천하고자 하니, 마음을 놓으시고 진중하십시오.”<sup>36)</sup>

인용문은 임흥과 주운화가 이별하게 되는 장면이다. 임흥과 주운화는 모두 명문가의 자제이나, 임흥은 중국의 승상이고, 주운화는 신하국 관리의 자식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왕은 임흥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까지 오는 대목이다.<sup>37)</sup> 임씨의 중국 시조라 할 수 있는 임흥의 인물됨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러하였다고 보더라도, 조선왕이 중국 승상의 결혼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까지 온 일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는 중국과 조선의 국가적·민족적 서열화하는 당대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데 내재된 갈등요소로 드러난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설혹 개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나아가 민족과 국가 간 차별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 임흥과 주운화의 결연과 이별은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한편 임흥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위씨 부인에게도 “소자의 천정배필이 동국에 있었으므로 예를 어기고서라도 혼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운화의 옥 같은 모습과 꽃 같은 태도, 정숙한 덕과 아름다운 몸가짐은 중국에서 찾아보아도 실로 처음 보는 바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미 흡족해졌으나 모친 모시는 자리 아래에 배알하기 쉽지 않으니 이것이 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sup>39)</sup> 주운화는 임흥과 이별한 뒤로부터 버들가지 같은 몸과 꽃 같은 얼굴이 초췌하여 날이 갈수록 점점 파리해졌다. 다음은 임흥이 주운화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임상서는 주부인 좌하(座下)에 편지를 드립니다. 뜻밖의 먼 이별을 한 지도 이미 1년이 지났으니,

국부자삼취기」, 15쪽)

36) 弘奉盃而飲，太息而答曰：“自當初事之難處，余豈不知？欲順天意，了此一段因緣耳。且夫人有三從之義，伏愿方伯俯察大倫，明春入從，未知如何？吾亦更愿使臣當踐再行之約，寬心珍重。”(「임상국부자삼취기」, 16쪽)

37) 國王欣然曰：“天子下詔，使我主婚，寡人亦當偕往以助婚儀。”即與偕行，侍衛之士，連亘十里，百官隨隊，濟濟彬彬，榮光燦爛，溢於道路，至於箕都。(「임상국부자삼취기」, 12쪽)

38)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71쪽.

39) 弘曰：“小子天定配匹，在於東國，故不得不越禮娶之，而周氏玉兒，花態，淑德，徽儀，求諸中國，實是初見。小子情願則已足，而母親座下，拜謁未易，以是爲恨。”(「임상국부자삼취기」, 19쪽)



어찌하여 세월을 그리도 빨리 가며 어찌하여 천지는 그리도 무정한 것인지요? 이제 천자께서 이미 봄에 오라고 허락하셨고 모친께서도 속히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그러니 부인께서는 비록 부모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겠으나 부부의 천륜도 헤아려서,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따라 견우(牽牛)와 직녀(織女)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오. 귀기(歸期)를 적시(的示)하고 속히 길을 떠나면 나 또한 마땅히 농중(隴中)으로 가서 당신의 수레를 기다리고 있겠소. 이번에 간 교격은 나의 먼 친척이니, 서찰 한 통을 부쳐 안면을 대신하오.<sup>40)</sup>

주운화는 편지를 다 읽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이 없었고 답서를 부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첩(小妾) 주씨는 임상국 좌하(座下)에 편지를 올립니다. 문밖에서 한 번 이별한 뒤로 소식이 영영 끊어지니 朝雲(조운)暮雨(모우)에 다만 스스로 넋을 잃을 뿐입니다. 만리(萬里) 밖에서 오신 사신을 통해 천금 같은 서찰을 받게 되니, 편지를 미처 뜯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어찌 인륜(人倫)의 대의(大義)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부모의 슬하에 오직 외동딸 저 하나이기 때문에, 첩이 당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만에 하나라도 갚기 어려울 것이니, 생전에 음식을 봉양하고 사후에 제사를 지내는 책임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첩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여생(餘生)을 받들겠습니다. 상공께서는 안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는 빈객을 대접해야 하니, 하루라도 가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고문(高門)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만세토록 화락하십시오. 이 밖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들 자명이는 상국의 혈육이니 장성하기를 기다려 들여보내겠습니다. 행여 이 아이를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첩의 간절한 바람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종(三從)의 대륜(大倫)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인연이 깊지 못하여 빈 규방에서 애를 끓읍니다. 거듭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타국의 천한 여자를 생각지 마시고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만세토록 안락하게 지내십시오.<sup>41)</sup>

이때는 봄 2월이었는데 임흥의 어머니 위씨가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

40) 任相書，奉書周夫人座下。居然遠別，已經一年，何日月之易徂，何天地之無情？…중략… 今則天子已許春畋，母親亦欲速見，夫人雖思父母之恩重，亦念夫婦之天倫，俯從三從之義，俾成雙星之會的示畋奇，速啓行程，則我亦當往隴中，已俟行駕矣。此去喬格，我之遠族，憑寄一札，以替顏面。(『임상국부자삼취기』, 20~21쪽)

41) 小妾周氏，奉書任相國座下。門外一別之後，消息永絕，朝雲、暮雨，只自消魂。茲因萬里之使，得承千金之札，未及開緘，有淚先下。…중략… 妾雖庸愚，豈不知人倫之大義？第以父母膝下，惟我一女，妾欲隨君，則昊天之恩，難報萬一，生前甘旨之奉，死後蘋蘩之祀，誰任其責？是以妾之愚意，已決。老死於故鄉，以奉父母之餘年。相公，內奉萱堂，外接賓客，不可一日無主家之人，速娶高門，萬歲和樂，此外更無所望。幼子子明，相國之血肉，待其長成，當令入送。幸因此兒，得傳消息，則妾之至愿，畢矣。三從大倫，非不知之，而因緣淺薄，斷腸空閨，玉顏薄命，自古如斯，復何恨乎？更望相公，勿念他國之賤女，陪侍高堂，萬世安樂。(『임상국부자삼취기』, 22~23쪽)

다. 임흥이 슬퍼함이 예에 지나쳐 3년 동안 슬피 울어, 형용이 초췌해지고 기운이 다하니, 보는 이들이 모두 위태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매년 사신 편에 주부인(周夫人)에게 편지를 부칠 수 있었으나, 부인은 아득하게도 들어올 기약이 없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몹시 원망하였다. 집안에 들어오면 위로는 늙은 부모님이 없고 가운데로는 아내가 없고 아래로는 한 명의 자녀도 없다. 위의 내용을 보면 임흥은 주운화에 대한 그리움이 밤낮으로 배나 절실하여 소년의 풍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임흥은 편지에서 주운화를 그리움을 다정히 표현하고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따라 중국으로 오기를 청했는데, 주운화가 자신을 외동딸이므로 만약 임흥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생전에 음식을 봉양하고 사후에 제사를 지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없을까 걱정하였던 까닭에 고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받들겠다고 하였다. 주운화는 임흥과 결혼을 했으므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남편을 따라 중국에 가야 했는데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제 임흥과 셋째 부인 설씨과의 결연에 대해 살펴보자.

황제가 말하였다. “여자는 본디 삼종지의(三從之義)가 있고 또 백리(百里)의 초상에 달려가지 않는다. 이 여자는 지아비를 따르는 도리를 잃었으니, 역지로 중국에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 경에게 어찌 혼처가 없겠는가? 경의 배필은 짐(朕)이 마땅히 찾아줄 것이다. 경의 처자가 이미 들어오려 하지 않고 만리타국에 소식을 통하기도 어려우니, 홀아버리의 괴로움을 경이 어찌 감당하리오?” 즉시 예조(禮曹)에 하조(下詔)하였다. 임흥의 삼취부인(三娶夫人)을 잘 간택(揀擇)하여 아뢰라. 임흥이 한탄하였다. “내 일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을 박명(薄命)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또 다시 장가든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자께서 정하신 혼인을 신자가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sup>42)</sup>

인용문을 보면, 황제가 임흥의 둘째 부인이 지아비를 따르고 삼종지의를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음을 알 수 있다. 임흥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아버리처럼 외롭게 살고 있었으므로, 황제가 세 번째 결혼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임흥과 셋째 부인 결연의 계기이다.

천사의 명으로 어사(御史) 설흠(薛欽)의 딸 설씨와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상공(相公)이 홀로

42) 帝曰: “女子本有三從之義, 且百里不奔喪, 此女子則失其從夫之義, 不必強召中國之地. 豈無可婚之處? 卿之配匹, 朕當求得.” 弘對曰: “聖教如此, 感祝無地. 但已得之妻, 亦不得同住, 豈可更求, 以誤其人之一生乎? 帝曰: “卿之妻子, 既不肯入來, 萬里外域, 消息難通, 鰥夫酸苦, 卿何能堪乎?” 卽下詔禮曹曰: 任弘三娶夫人, 極擇以達. 任弘不敢更告, 謝恩而出. (『임상국부자삼취기』, 25쪽)

서창(書窓)에 기대어 흰 눈을 마주하여 동쪽을 바라보고 한숨 쉬며 탄식하였다. “지금 이때 주부인은 별 탈 없이 잘 있는가? 부인이 고집하여 오지 않았으니 협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한스러운 심정이 하늘에 닿았구나. 눈 위의 옥매(玉梅)가 어찌 부인의 고단한만 하겠는가?” 설부인(薛夫人)이 말하였다. “상공께서는 조정 대신으로 명성이 사해(四海)에 가득한데 어찌 이처럼 참담하게 근심스러운 기색이 낮에 가득하십니까? 화창한 봄이 되기를 기다려 말미를 청해 나가시어 외로운 아내를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주십시오.”<sup>43)</sup>

황제는 임흥이 세 번째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임흥은 어사(御史) 설흥(薛欽)의 딸 설씨와 결혼하였다. 설씨는 인물과 재주가 천하제일이었다. 마침내 혼안을 정하고 육례(六禮)를 갖추어 설씨 집안에 도달하여 신부와 마주하니, 옥같이 아름답게 생긴 얼굴은 어여쁘고 태도는 아름다웠다. 침중(沈重)하고 화순(和順)함은 비록 동국(東國)의 주운화에 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임흥은 주운화를 잊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주운화에 대해 변함없는 그리움을 지니고 있었다. 설씨는 주운화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임흥을 보고 말미를 청하여 조선으로 가서 주운화를 설득하여 데리고 오라고 제안한 것이다.

선달 초순이 되자 병세가 더욱 위중하니 임상국이 이제 일어나지 못할 줄을 스스로 알았는지라, 별시(別詩) 10여 장을 지어 설씨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동국(東國)에 있는 내 아내 주부인(周夫人)과 내 아들 임자명(子明)에게 전해 주시오.” 선달 15일에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설씨의 손을 잡고 탄식하였다. “내가 남자를 만난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는데 일점혈육(一點血肉)도 없으니 구천(九泉)으로 돌아가면서 애통한 마음이 천지처럼 끝이 없소. 자명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남자의 몸을 의탁하여 내 혼백을 위로해 주오.” 말을 마치고 죽으니 이때 그의 나이 34세였다.<sup>44)</sup>

인용문을 보면 임흥이 오랫동안 병을 앓은 나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이 불평하여 병세가 나날이 더욱 위급해졌다. 설씨가 망극하여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기도하였으나 다 효험을 보지 못하였고 의약(醫藥)을 만방(萬方)으로 써봤지만 조금의 차도 없었다. 선달 초순이 되자 병세가 더욱 위중하니 임흥이 이제 일어나지 못할 줄을 스스로 알았다.

43) 相公獨倚書窓，對雪東望，太息而嘆曰：“此時，周夫人無恙否？夫人固執不來，非可脅迫。我之恨情，徹於蒼天。雪上玉梅，何如夫人之孤單耶？”因淒然墮淚。薛夫人曰：“相公，朝廷大臣，名滿四海，何其愁色滿面如是之慘耶？大丈夫，志氣如天，一動則陰陽之候，隨處而變，一解則冲和之氣，隨感而發。待得和春，請暇出往，以慰孤妻，解其愁懷。百端開諭，與之同還，生子生女，百年和樂，則此乃大丈夫之事也，何乃屑屑懷愁，煩惱肝膽乎？以妾愚見，可笑可笑。唐突敢告，相國思之。”(「임상국부자삼취기」, 28쪽)

44) 臘月十五日，病勢尤飭，執薛氏之手嘆曰：“我逢娘子，已至一二年，無一點血肉，皈於九原，痛迫之情，天地無涯。待子明之入來，以托娘身，慰我魂魄。”言訖而終，時年三十四矣。(「임상국부자삼취기」, 31쪽)

이별시(離別詩) 10여 장을 지어 설씨에게 맡긴 후에 조선의 주운화와 아들에게 전해 주기를 당부하고 죽었다.

지금까지 임흥 세 부인의 결연 방식을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임흥의 첫 번째 혼인은 남녀 두 집안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가가 작품 속에서 첫 부인에 대한 서술이 매우 간략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밖에 없는 것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혼인은 신인이 지시를 통해 천정배필을 만나 결혼한 것이다. 임흥은 꿈속에서 만난 신인의 지시를 받고는 오로지 천정배필을 찾기 위해 조선으로까지 찾아오는 적극성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임흥과 두 번째 부인이 결혼한 후에 일반적으로 부인이 남편을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섬기면서 효를 다하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 혼인은 황제의 명령으로 임흥이 세 번째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임흥은 황제의 명에 부득이 응하여 세 번째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씨는 조선에 있는 주씨에게 임흥의 부고와 유고시(遺稿詩)를 전해주어 주씨 모자(母子)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씨와 자매처럼 지내며 주씨의 아들 임자명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sup>45)</sup> 임흥은 비록 세 번째 부인 설씨와 두 번째 부인 주씨는 모두 부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임흥은 설씨와 결혼한 후에도 주운화를 잊지 못해 죽을 때까지 주운화에 대해 변함없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임흥이 주운화와 설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임흥은 주운화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였다. 그러나 임흥은 설씨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지나는데도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하였다. 이를 보면 임흥은 주운화를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운화와 유일한 계승자를 낳았는 게 아닐까 싶다. 임흥은 비록 세 번의 결혼을 겪었으나, 시종 주운화에 게 애정이 부각되고 있는데, 심지어 결혼하지 얼마나 지나지 안돼서 이별을 당하고 그리움의 고통을 참아 죽을 때까지 주운화를 만나지 못했다. 임흥의 입장에 보면 가장 사랑했던 부인과는 행복한 결말이 되지 못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작가가 임흥의 두 번째 결연 과정을 통해서 주운화처럼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성격의 매력을 강조했다는 모습이 드러난다. 더불어 임흥은 주운화와는 경우는 신분이나 존재의 차별보다 국가와 민족 간 차별 양상이 부각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운화는 임흥을 상국(上國)의 귀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외국의 천한 여자라고 불렀다.<sup>46)</sup> 주운화는 국가 간 차별에서

45) 김수연, 「육체의 경계 지우기 -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패러디와 자기서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98쪽.

오는 또 다른 불평등한 지위를 인식하고, 임흥과의 이별을 사람과 귀신의 만남만큼이나 절대적으로 결합 불가능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나아가 당시 서로 다른 국적이나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며, 이런 문제들이 사랑의 행복한 결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임자명(任子明)과 위운빙(魏雲娉)·정씨(鄭氏)·경씨(慶氏)의 결연

아버지 임흥의 애정 방식이 주운화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아들 임자명의 애정 방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48)</sup> 임자명이 첫 번째 부인 위운빙, 두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하게 되는 계기는 사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결연 방식을 서술하기 위해 따로 정리하기로 하며, 위운빙은 정씨보다 먼저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첫째 부인으로 일컫기로 한다.

하루는 임흥이 위무를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나이가 대 여섯 살 정도요, 옥 같은 용모와 꽃 같은 태도는 부용화(芙蓉花)가 무색할 정도였으며, 바라보니 마치 초승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였다. 나이는 비록 어렸으나 총명함은 남보다 뛰어났다. 임상국이 물었다. “이 선랑(仙娘)은 뉘 집 따님인가?” 위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바로 소제(小弟)의 막내딸 운랑(雲娘)입니다. 성품이 자못 활달하니 제 수중(手中)의 보배이지요.” 임상국이 옆에 앉히고서 감탄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필시 선녀가 적강(謫降)한 것이로다. …중략… 동국(東國)에 있는 내 아들 자명(子明)이는 비록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인인군자(仁人君子)다운 사람일 것이네. 훗날 중국에 들어온 뒤에 진진지호(晉秦之好)를 맺고자 하니, 형의 생각은 어떠한가?” 위자명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저도 본래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약속을 굳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삼척(三尺)의 비단을 꺼내어 맹세의 말을 썼다. 훗날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sup>49)</sup>

46) 周氏歛容對曰：“天使上國之賢人，小妾外國之賤女也。成婚之日，已知有此別，久矣，恨之何益？妾則當爲望夫石矣。腹中血肉，已至三四朔，待其解婉收養，可也。妾則父母之一女也，生前何忍遽離？”(『임상국부자삼취기』, 15쪽)

47)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71쪽.

48) 앞의 논문, 260쪽.

49) 一日相國，往見魏尙書，從容談話，有一女兒出來，年可五六歲，玉兒，花態，芙蓉無色，望之若初月過出雲表。年齒雖少，聰慧絕人。相國問曰：“此仙娘，誰家女也？”尙書笑曰：“此卽少弟畢女雲娘也。性頗疎通，爲弟手中之寶也。”相國引坐於傍，嘆曰：“此必仙女謫降。我則罪惡甚重，膝下無一男女。聞東

위 인용문은 임자명과 첫 부인 위운빙의 결연 과정이다. 임흥과 위무(魏武)와 벗이었는데 임자명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혼인시키기로 약속하였던바 위무의 딸이 바로 위운빙이다. 하지만 임흥이 죽은 후 임자명이 중국에 들어감에 따라 사정이 변하였다. 태사(太史) 두연(杜延)에게는 문장이 능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두연은 위숙 누이동생의 재모(才貌)가 당대에 짝이 없을 정도라는 말을 듣고는 아들과 혼인하게 하고 싶어서 위숙을 만나 달콤한 말로 꾀었다. 위숙이 돌아와 모친을 뵈었는데 누이도 그 옆에 있었다. 위숙은 두태사(杜太史)의 맑은 덕 및 그 아들 두생(杜生)의 수려한 용모와 훌륭한 문장을 성대하게 칭찬하는 데 반해, 위운빙이 자기 며느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으로 인해 중간에 위운빙의 모친에게 임자명의 사람됨이 어린 나이에 일찍 영달하여 지기(志氣)가 교만한 데다가 청수(淸粹)하기까지 하여 오래 살 수 못할 것이고 이런 좋지 않게 말을 했다.<sup>50)</sup> 이 때문에 임자명과 위운빙이 만나본 적이 없이 약혼이 깨어지게 되었다.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 삼춘가절(三春佳節)을 만나 강산은 수려하고 풍경은 절승하였다. 임자명이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즐겨, 물과 돌 사이를 왕래하고 꽃과 버들 가운데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어 돌아와 화세교(華世橋)에 이르렀을 때, 문득 맑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보니 거문고 소리는 가냘프고 음조는 처절하였다. 임자명이 봄철에 일어나는 흥치(興致)에 취하여 담 안으로 몰래 들어가 서쪽 계단에서 몸을 숨기고 엿보았다. 붉은 칠을 한 굽은 난간이 빼어난 경치 속에 그윽이 자리 잡았는데, 주렴(珠簾)은 높게 걸려 있고 사창(紗窓)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한 부인이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고 곁에는 한 소저가 있었는데 선녀처럼 아리따운 모습은 광채가 눈부셨고 붉은 입술을 반쯤 여니 온갖 교태가 다 생겨났다.<sup>51)</sup> 이후에 선녀 같은 미인들은 정씨와 위운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國夫人生男，而皆未得見，豈不恨歎？雖近猥濫，我有一言，兄勿笑焉。我之東國子子明，時雖未見，必有仁人君子之人也。他日入來之後，欲結晉，秦之好，兄意如何？”魏尚書大喜曰：“我本有意，而未敢發口也。與之牢定，可也。”即出三尺之絹，以書盟辭曰：後若更改，必有天殃。(「임상국부자삼취기」, 27~28 쪽)

50) 太史杜延，有一子能文，聞魏淑小妹之才兒，當世無雙，欲與子結婚，見淑甘言誘之。淑既見母親，小妹在側，盛稱杜太史清德，及其子杜生之美兒，能文，且曰：“小妹婚事，雖有先君之遺盟，今見任子明爲人，年少早達，志驕氣滿，且又淸粹，不久於塵世者也。豈以小妹之卓越後邁，爲此人之配匹，誤其百年之佳緣乎？母親，寬心思之。”(「임상국부자삼취기」, 44쪽)

51) 時直三春之節，江山秀麗，風景絕勝。子明遊樂山川，往來於石泉之間，徘徊於花柳之中，日昃而返，至於華世橋邊，忽聞歌聲清越。遂前而至，琴聲裊裊，音調淒絕。子明爲春興所惱，偷入牆內，由西陞，至於葡萄架下，隱身於花叢而窺之，朱欄，曲檻，幽邃絕勝，珠簾高捲，紗窓半開。一夫人，倚席而坐，傍有一小姐，綽約仙態，光彩射目，半啓朱唇，百媚俱生。遠而睇之，若朝日之出於東嶺，近而見之，若芙蓉吐於淸池。生不覺喪失心神，忽見一小姐，自內而出，紅裙，翠袖，緩步來之，從容之氣，嬋妍之態，與坐中小姐無異，而豐潤之氣，倍勝焉。(「임상국부자삼취기」, 46~47쪽)



임자명이 떠난 그 집은 바로 좌승상(左丞相) 정현(鄭賢)의 집이었고 부인 석씨(石氏)에게는 3남 2녀가 있었는데 모두 혼인하고 다만 미혼인 막내딸이 하나 있었다. 석씨는 임자명의 영결스러운 풍채와 몸가짐이 나라에서 짝이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을 보고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여 사위로 삼기 위하여 위운빙의 어머니 정씨에게 찾아가 이 결혼을 주선하여 위운빙과 정씨를 모두 임자명과 결혼시키겠노라고 이야기하였던바, 이로 인해 임자명은 위운빙과 정씨를 한꺼번에 부인으로 맞이한다. 특히 아황(娥皇)·여영(女英)의 전고를 사용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아래 인용문은 아황·여영의 전고가 흥미로운 면모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윽고 승상이 돌아오자 부인이 곧바로 이 말을 고하니 승상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임자명(任子明)이오. 내 누이가 안목이 없어 이러한 혼처를 버리려 하는지라, 내 장차 주혼(主婚)하여 천연(天緣)을 맺어주고 또한 내 딸로 건줄을 두 번째로 받게 하려 하오.” 또 두 소저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옛날 아황여영(娥皇女英)이 지금 세상에 다시 나왔구나.” 위운빙이 자리를 피하여 대답하였다. “소질은 이미 폐인이 되었으므로 인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숙부께서 주선하고자 하시니 소질이 비록 무식한 여자이지만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투기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소질은 바라건대 저 집안의 천한 일(채찍을 잡는 마부)을 맡고자 하니 어찌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소녀는 비록 학문에 어두우나 아황여영의 일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황과 여영이 순을 섬겨 살아 계실 때에는 옆에서 모시며 거문고를 타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동정호와 소상강에서 대숲에 눈물을 뿌려 마침내 소상반죽(瀟湘斑竹)이 되었습니다. 표형(表兄)이 당시에 행한 일이 화순하고 정직하니 이름은 비록 종형(從兄)이나 정은 형제와 같습니다. 함께 키와 빗자루를 받들어 아황여영과 같고자 합니다.”<sup>52)</sup>

‘아황(娥皇)·여영(女英)’은 중국 고대의 임금 요(堯)의 딸인 아황과 여영이고 둘이 모두 순(舜)에게 시집갔다. 여기서 임자명과 위운빙·정씨의 결연 방식은 아황·여영의 고사를 근거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이런 방식으로 임자명이 한꺼번에 두 부인을 맞아 들인 데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루는 임자명과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임자명을 찾아와 오래전부터 악주(岳州)의 동정호(洞庭湖)가 풍경이 절승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유람하고 싶다고 청하자, 임자명이

52) 石氏歡悅。俄而丞相還來，夫人即告此語，丞相喜曰：“此乃吾之平日愛重任子明也。吾妹無目，欲棄如此之婚，吾將主婚以結天緣，亦以吾女，次奉巾櫛。”又顧謂二小姐曰：“古有皇，英，今世亦復有之乎！”避席而對曰：“小姪已成廢人，不得參於人倫。叔父欲爲周旋，小姪雖是無識之女，豈有一毫妬忌之心乎？小姪則願爲彼家執鞭之任，有何多言？”鄭小姐曰：“小女雖昧學問，粗知皇，英之事，皇，英事舜，生則侍側彈琴，死則洞庭，瀟湘，洒淚叢篁，遂爲斑竹。表兄當皆行事，和順正直，名雖從兄，情同兄弟。共牽簞簞，願如皇，英也。”(『임상국부자삼취기』, 54쪽)

허락하고 출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부인 정씨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예언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임자명이 동정호에 가면 선녀 한 명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선녀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이라는 것이다. 임자명은 웃으면서 부인에게 꿈속의 헛된 일을 믿을 수 없고 비록 항아(姮娥)가 내려오더라도 그의 부부의 은정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자명이 동정호에 가서 황건을 쓰고 청삼을 입은 소년을 만나는 장면이다.

소년이 말하였다. “소생은 산중의 필부인지라, 그런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략… 소생의 선군(先君)은 건문제(建文帝) 때 색사어사(穢事御使)로 있었던 경 아무개[慶某]입니다.<sup>53)</sup> 어젯밤 꿈에 선군께서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상서 임자명이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니 이 사람은 우리 딸 아이의 배필이오. 오거든 그때를 놓치지 마시오.’라고 하셨는데 존객께서 과연 왕림하시지 실로 몽조(夢兆)와 부합합니다. 감히 여쭙는데, 존객 중 어느 분이 임자명이십니까?” 임자명이 말하였다. “내가 올 적에 소처(小妻) 정씨(鄭氏)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곳에 와보매 정말 그러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임자명이 마지못하여 행장(行裝)의 금잠(金簪)과 금대(金帶)를 폐백으로 삼았다. 다음날 성친(成親)할 때에 옥상(玉床)에 전안(奠雁)을 행하고 물러나 내당으로 들어가니, 맞절한 후 마침내 동방(洞房)에 들어가 마주하니, 심신은 쇠락(洒落)하고 태도는 기절(奇絶)한 것이 형언하기 어려웠다.<sup>54)</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소년이 어젯밤 꿈에서 선군이 지시한 것을 말하자, 임자명은 크게 놀리고 이 또한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하였다.<sup>55)</sup> 소년이 택일해 보니 다음날 바로 길일이니 성례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임자명은 노모가 고당에 계신데 아들이 혼자 결단하는 게 곤란하다고 하였다. 소년이 임자명에게 그의 말씀을 비록 그러하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은 어길 수 없으니 다시 고사하지 말라고 하자 임자명이 마지못하여 다음 날에 경씨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당일에 맞절한 후 마침내 동방(洞房)에 들어와 마주하니, 마음과 몸은 개운하고 깨끗하고 태도는 기절(奇絶)한 것이 형언하기 어려웠다. 다음날 장

53) 有一少年，自內而出，黃巾，青衫，形容飄杳，宛然一神仙人也。少年答曰：“小生山中匹夫，不敢當也。但有一言，冒沒敢告，尊客勿笑。小生之先君，建文時爲穢事御史慶某也。”(『임상국부자삼취기』, 67쪽.)

54) 不幸先君棄世，寡母率養男妹，昨夜之夢，先君謂母曰：‘任尙書子明，必爲來此，是吾兒之配匹也。來卽勿失其時。’尊客果臨，實合夢兆。敢問尊客，誰是任子明也。…중략… 少年喜曰：“勿須多言，姓名已與夢事相合，告于偏親，願卽成禮。”遂入于內，三人相對大笑。尙書曰：“吾來時，小妻鄭氏曰：‘如此如此。’來此果然，此亦奇事也。”…중략… 少年曰：“雖然，天定因緣，不可違背，更勿固辭。”尙書不得已，以行中金簪，金帶，爲幣。明日成親，奠雁玉床，退入內堂，黃燭明朗，香氣飄飄。就合歡席，舉眼視之，世上安得有如此人乎！情神恍惚，不能自定。交拜後，遂入洞房，與之對坐，心神洒落，態度絕奇，難可形言。(『임상국부자삼취기』, 67~69쪽)

55) 尙書曰：“吾來時，小妻鄭氏曰：‘如此如此。’來此果然，此亦奇事也。”(『임상국부자삼취기』, 68쪽)



모(丈母)에게 절을 하니, 부인이 매우 기뻐하였다. 며칠 동안 지나고 임자명이 경씨에게 이제 이별 기한이 다가오는데 여자에게는 삼종지의가 있으니 자신을 따라 평생을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두 부인 위씨와 정씨는 정숙하고 얌전한 여자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 즐거울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경씨는 임자명에게 자신이 이제 막 강보를 벗어나자 모친께서 마침내 꿈속의 허언을 믿어 상공의 건줄을 받들라 명하셨으니 고명딸로서 차마 멀리 떠날 수 없다고 말씀들을 드렸다. 이때 장모와 이별하면서 내년 봄에 데려가기를 청하니 부인이 허락하였고 소저 또한 중문을 나와 이별하였다. 임자명이 경사(京師)로 돌아와 사은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노부인은 안녕하시고 두 부인과 두 아이 또한 무탈하였다. 가노(家奴)가 행장을 점검하다 편지 두 통을 주부인 앞에 드렸는데 편지를 열어보니 곧 경씨의 편지였다.

부인이 크게 놀리고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편지이냐?” 상서가 자리를 피하여 그 곡절을 이야기 하니, 주부인(周夫人)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청춘에 돌아가신 상공을 저버리고 모친 목숨을 지금까지 보전하고 있는데, 무슨 호흥(豪興)이 있어 또 삼 부인을 두었느냐? 하물며 네 두 부인이 명민하여 노인을 봉양하매 효성이 지극하고 일가 화락하여 집안에 일이 없으며, 더욱이 두 아들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데, 무슨 부족한 일이 있어 산속의 요물을 얻어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이후로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라!”<sup>56)</sup>

위의 인용문은 임자명은 어머님 주부인에게 경씨가 쓴 편지를 보여준 후에 주부인이 굉장히 불쾌한 모습을 드러난다. 임자명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위 부인과 정부인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이것은 가부(家夫)가 호탕하여 여색을 탐한 잘못이 아니라 이 또한 하늘이 정해진 인연입니다. 첩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지난날 몽사(夢事) 이러하였습니다. 경씨는 탁월하고 온근(溫謹)하다 하니, 가모(家母)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하물며 상서의 작위가 이미 높아 정승이 될 날이 멀지 않으니 당장에는 비록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셋째 부인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첩들은 조금의 개탄하는 마음도 없으니 속히 데려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실로 첩들의 바람입니다.”<sup>57)</sup>

56) 家奴善點檢行李，以簡書二封，納于夫人前，開緘見之，乃慶氏之書也。夫人大驚曰：“此何簡書也？”尙書避席，告其曲折。周夫人大叱曰：“我青春背夫先相公，頑命至今苟存，有何豪興，又作三夫人乎？況汝兩夫人明敏，奉養老人，極盡誠孝，一家和樂，家中無事，且有兩兒，慰我兩人心懷，有何不足之事，更得山間妖物，欲亂家內乎？自此之後，勿近於吾眼下！”(『임상국부자삼취기』, 70~71쪽)

57) 魏，鄭兩夫人伏地告曰：“此非家夫豪(浩)蕩貪色之失，此亦天定之緣，妾等已詳知之，前日夢事如此如此。聞慶氏卓越溫謹，甚合家母。況又尙書，爵位已高，登台(臺)不遠，今雖不娶，其時不具三妻乎？妾

위의 인용문을 보면 특별한 것은 임자명의 두 부인이 경씨에 대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위부인과 정부인은 경씨가 셋째 부인으로 들어온 뒤, 주부인에게 상반된 반응을 드러낸다. 그리고 위 부인과 정부인은 경씨에게 질투심을 띠지 않고 오히려 임자명을 도와 주고 주부인을 설득했다는 것은 대다수의 부인에게 현숙함을 강조한다.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나 경씨가 임신하여 병이 깊어지니, 그 어머니 한씨(韓氏)가 소식을 전하였다. 위씨가 임자명에게 가서 속히 데려오기를 권하니, 임자명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경씨가 조금도 갈 마음이 없자, 한부인이 십분 계유하여 날짜를 가려 보내니,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모부인(母夫人)과 작별하였다.<sup>58)</sup> 근근이 길을 가니 구름 덮인 산은 첩첩인데 도로는 멀고 험하였다. 경생도 따라가 은파교에 이르니 임자명이 옥화궁으로 거처를 삼았다. 임자명이 경씨를 보고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이튿날 경씨가 두 부인에게 납폐를 드리니, 자색의 아름다움이 여자들을 중 빼어난지라 보는 사람들이 황홀하여 감히 바로 보지 못하였다. 옆에 사람들이 경탄해 마지않았고 두 부인 또한 사람인지 귀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이날 위씨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화려하게 나와 뒷자리에 앉으니 암전하고 온화하여 그 덕성을 알 수 있었다. 정씨 또한 성장과 성복(盛服)을 하고 나오는데 아리다운 모습이 경씨와 더불어 다름이 없었다. 임자명이 세 부인, 두 아들과 밤낮으로 즐겁게 지냈다. 이해 겨울에 경씨 또한 아들을 낳았는데 풍채와 골격이 양원, 차원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아이 이름을 계월이라 지었다. 임자명이 지위는 각로에 이르고 명성은 천하에 가득하여, 전쟁에 나아가면 장수가 되어 도적을 쓸어버리고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이 되어 충성(忠誠)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報答)하였다. 이렇게 임자명은 삼취를 완성하였다.

정씨는 나이 50여 세에 중병이 들어 죽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위부인이 문득 병이 들어 승상에게 자신이 승상과 더불어 금슬의 정이 지극하여 자손이 번성하였으니 비록 구천으로 돌아간들 무슨 한이 없었다. 옆드려 바라건대 임자명께서는 경씨와 평안히 백세(百歲)를 누리시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고 죽으니 자손들이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절하였다.

하루는 임자명이 추월동 산수암(山水庵)에 올라가 풍경을 완상하다가 문득 피곤하여 끈을 얹어 만든 의자에 기대어 선잠이 드는데, 위부인과 정부인이 문득 앞에서 절하고

等少無慨歎之心，母親勿爲過念，速許眷飯，實是妾等之愿也.”(『임상국부자삼취기』, 71쪽)

58) 荏苒之間，已及三四朔，慶氏懷孕病重，其母韓氏，傳其消息。魏氏勸尙書趣速勸來。尙書卽送人馬，促其行期。慶氏少無于歸之心，韓夫人十分教諭，擇日送之，小姐泣辭母夫人。(『임상국부자삼취기』, 73쪽)

임자명에게 그들은 지금 무산선녀가 되었고 지닌 생애 함께 선녀였는데 복숭아를 나누는 요지(瑤池)의 연회에서 복숭아 하나를 훔쳐 위씨에게 몰래 주었기 때문에, 옥황상제께서 대로하여 적강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임자명에게 그는 곤륜산(崑崙山) 신선이고 경씨는 봉래산(蓬萊山) 선녀였는데 임자명과 인연이 있으므로 지금 임자명의 배필이 되었으니, 임자명은 경씨와 더불어 한평생을 같이 살며 함께 즐거워하시라고 말해주었다.<sup>59)</sup> 말을 마치고서 바람을 타고 떠났다. 그 후에 임자명이 나이 80세, 경씨는 나이가 76세에 이르러, 3월 답청(踏青)일에 갑자기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추월동에 장사를 지냈다. 자손들은 명예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중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임자명과 셋째 부인 경씨 사이에 다른 두 부인과 달리 갈등이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쉽게 결연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임자명의 애정 모습은 역시 앞서 보여주었던 아버지인 임홍의 애정 모습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부부 관계의 각도에서 접근할 때, 임홍과 임자명의 애정 방식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이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임자명의 애정 방식을 보면, 아버지 임홍과 같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인을 그림지 않고, 오히려 이와 달리 재자가인의 애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자명은 비록 부인 세 명을 맞아들였는데도 첫째 부인 위운빙과 둘째 부인 정씨는 실제로 둘이 같은 역할이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위운빙과 정씨는 서로 부조하고 어떤 갈등도 없이 화목하게 지낸 사이라 할 수 있고 작가가 아황·여영의 전고를 사용하여 그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첫째 부인 위운빙과 둘째 부인 정씨는 셋째 부인 경씨를 위해 합심하여 주부인을 설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비슷한 역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임자명과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결연 방식을 살펴보면 세 사람이 미리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봉건사회의 예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임자명과 셋째 부인 경씨는 동방(洞房)에 들어간 후에 만났으니 봉건사회의 예의에 비추어 혼례를 거행했다. 그리고 임자명과 경씨 동시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백년해로한 부부라 할 수 있다.

59) 二夫人曰：“妾等今爲巫山仙女也。前生俱是仙女，瑤池分桃之會，偷取一桃，潛給魏氏，上帝大怒，謫降之時，使妾爲魏氏之同列，故在世時，共事丞相，備盡榮辱，死有何恨？且相公崑崙山仙子也，慶氏乃蓬萊山仙女也，亦與相公，有宿世之緣，今爲相公之配匹，伏望相公，與慶氏百年同樂也。”(『임상국부자 삼취기』, 85쪽)

### 3. 기타 인물의 역할과 특징

여기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주인공이나 내용이 크게 차지한 주요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이외에 작품 속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많다. 예를 들면, 병부시랑 위무(魏武), 한림학사 양우경(梁遇敬)과 어사(御史) 설흠(薛欽)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위자란(魏紫蘭)과 임산추(任山秋)를 다루고자 한다.

임자명이 정현(鄭賢)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시비인 위자란을 만나 하룻밤을 지내서 정을 통하고, 나중에 여러 절차를 걸쳐 시첩으로 맞아들인 인물은 바로 위자란이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위자란이 임자명에게는 성적으로 첫 여인이라는 점도 주목이 된다. 더불어 이 작품에서 위자란이란 역할을 통해 이야기의 전개에서 기복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각 주인공의 성격을 더욱 입체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위자란의 역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임산추의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는 임자명과 백구(白狗)가 낳은 아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흔히 인수교혼(人獸交婚)의 화소로 지칭하다. 그리고 작자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임산추를 아버지인 임자명의 명령을 받아 따로 조선에 들어가 임자명을 대신해 제사를 이어져 주고, 나아가 동국임씨(東國任氏)의 시조로 설정하였다. 이들 모두 다 임산추라는 역할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위자란에 대해 분석하겠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배경은 임자명이 어느 날에 노니다가 정씨 집안 잔치에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에게 끌려 몰래 담장에 넘어 들어간 내용에서 시작하였다. 몰래 들어오다가 정씨와 위씨의 미모에게 반하여 어찌다가 정씨 집안에 한밤을 보내고 숙소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마침 시비인 위자란에게 들킨 것이다. 이는 바로 위자란의 첫 등장이며, 임자명과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에 인용문은 바로 위자란이 임자명이 몰래 정씨 집안에 들어간 것을 발견 후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다.

“어떠한 사람이 후원에 몰래 들어와 무슨 도적질을 하는가?” 임자명이 대답하였다. “나는 도적이 아니라 그저 일개 유람객으로, 우연히 선가(仙家)와 월궁(月宮)에 당도했을 뿐이네.” 그 시비는 임생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애중(愛重)하는 마음이 생겨 말하였다. “이곳은 번잡하여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한 번 왕림해 주십시오.” 임자명이 매우 기뻐하여 마침내 침방(寢房)으로 들어가니 방안이 정결하였다.<sup>60)</sup>

60) 大驚曰：“何許之人，偷入後園，作何盜賊之事乎？”子明對曰：“我非盜賊，特一遊客，而偶到仙家，月

위와 같이 위자란이 임자명의 도적질을 보고 질책하였지만, 그 준수한 얼굴을 보고 갈 곳이 없는 임자명에게 계속 몰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었다. 이어져 둘이 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자명이 물었다. “이 집은 뉘 댁이며 남자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이 집은 관원후(關元侯) 정승상(鄭丞相) 댁 별원(別園)입니다. 승상께서는 일이 있어 출타하셨고 부인과 소저께서 이 정원의 풍경을 사랑하여 여기 머물러 감상하셨는데, 다음달에는 본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소첩의 성명은 위자란(魏紫蘭)이니, 본래는 양가(良家)의 딸이었습니다. 천자께서 관원후가 공이 많다 하여 노비를 상사(賞賜)하시고 또 민간의 여자를 뽑아 시비로 삼게 하셨는데, 저 또한 선발되어 왔습니다. 집이 깊숙하여 잡객이 오지 않는데, 뜻밖에도 다행히 수재를 만났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임생(任生)이 또 물었다. “왼쪽 자리에 앉은 소저는 누구인가?” 위자란이 말하였다. “윗자리에 앉으신 분은 우리 소저이시고, 아랫자리에 앉으신 분은 위상서(魏尙書)댁 소저이십니다.” 임자명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위상서께서 이 댁과 친척이신가?” 위자란이 말하였다. “위상서 부인 정씨(鄭氏)는 곧 우리 승상의 누이입니다.”<sup>61)</sup>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임자명이 위자란의 신분을 파악하고 나서 정씨와 위씨에게 관심이 있어 위자란에게 두 여인에 관한 정보까지 얻으려고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위자란이 아낌없이 두 양반 집 아가씨의 신분이나 규명(閨名)을 알려주었다. 즉 임자명이 위자란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고, 후일에 두 여인을 맞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임자명은 두 아가씨의 정보 파악이 되자마자 위자란에게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위자란을 하룻밤을 같이 자도록 설득시킨 장면이 있다.

임자명이 내심 기뻐하여 또 위자란에게 말하였다. “내 본래 풍경을 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절대가인(絶代佳人)을 한번 만나보고 싶을 뿐이니, 그럴 수 있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백년간약(百年佳約)을 맺으려 하네. 오늘 우연히 남자를 만나니, 옥 같은 얼굴과 아름다운 모습이 실로 내 맘에 꼭 드는구려. 오늘 청산녹수(靑山綠水)를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컨대 그대를 버리지 않겠소.” 위자란이 말하였다. “첩이 한 조각 교만한 마음을 지녀 녹록(碌碌)한 사람을 따르지 않기로 맹세했는

府耳.” 其女見生俊秀，愛而重之曰：“此地有煩，難與說話，有寢所愿，即一臨也.” 子明大喜，遂入寢房，房舍精潔. (『임상국부자삼취기』, 49쪽)

61) 子明問曰：“此家誰宅？娘名云何？”對曰：“此家即關元侯鄭丞相宅別園也. 丞相有故出外，夫人與小姐，愛此園中風景，留賞於此，來月則當還本宅. 小妾姓名則魏紫蘭也. 本是良家女，而天子以關元侯功多，賞賜奴婢，又選民間女子，以爲侍婢，妾亦被選而來. 宅舍深幽，雜客不來，不圖今日幸逢秀才，萬幸萬幸.” 生又問曰：“左邊席所坐小姐，誰也？”紫蘭曰：“上坐者，吾家小姐，下坐者，魏尙書宅小姐也.” 子明大驚曰：“魏尙書與此家，有親戚否哉？”紫蘭曰：“魏尙書夫人鄭氏，即我丞相之小妹也.” (『임상국부자삼취기』, 49~50쪽)

데, 오늘밤 다행히도 수재를 만났으니 이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원컨대 건줄(巾櫛)을 받들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것이니 수재께서는 첩을 천하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규중(閨中)의 옥화(玉花)가 저를 용납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명이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본래 흠아비니, 어찌 투기할 옥화(玉花)가 있겠느냐?” 자란이 답하였다. “만약 이와 같다면 참으로 우리 집 소저의 배필 이십니다.” 자명이 말하였다. “내 행색이 낭패를 당했다가 뜻밖에 마침 낭자를 만났는데, 어찌 감히 규중의 소저를 배필로 삼기를 바라겠는가. 밤이 이미 심었으니 잠시 쉬었다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라네.” 자명이 이렇게 유인(誘引)한 것은 자란과 먼저 좋은 연분을 맺고 이후에 소저를 도모하려는 계책이었다. 이날 밤 마침내 자란과 동침하였다.<sup>62)</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자명은 아름다운 위자란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위자란에게 시간이 이미 늦은 이유로 잠시 쉬었다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자명이 이렇게 유인한 것은 위자란과 먼저 좋은 연분을 맺고 이후에 소저를 도모하려는 계책이었다. 이를 보면 임자명은 위자란과 동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낮게 말하고 적당한 핑계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날에 밝자마자 위자란이 급히 일어나 임자명을 내보냈다. 임자명이 황망한 가운데 왔던 길을 잃고 곧장 부인의 침방 밖에 이르니 임자명을 보고 크게 놀았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물었다. “수재는 용모와 풍채로 보아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필시 연유가 있어 이곳에 왔을 것이니 신상을 알고자 하노라.” 자명이 말하였다. “호협한 남자가 화류(花柳)를 찾기 위하여 우연히 별세계에 들어왔다가 존귀한 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신상을 밝히고자 하나 명가자제가 사체(事體)로 보아 그리 할 수 없으니 굳이 많이 묻지 마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부인이 말하였다. “심궐(深閨)에 몰래 들어와 이렇게 발악하고 성명을 말하지 않으니 속히 법사(法司)로 보내라.” 자란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 공자께서는 지난 밤 숙소를 얻지 못하여 첩의 방에 오셨습니다. 그 성명을 물으니 은파교(銀波橋) 임상국(任相國)의 아들 자명(子明)으로, 지금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습니다.”<sup>63)</sup>

62) 子明內自歡喜，又謂紫蘭曰：“我本不貪風景，只欲一見絕代佳人，不計貴賤，以結百年之好緣，今日偶逢娘子，玉顏，英彩，實叶我願，今日以青山，綠水爲誓，誓不棄汝。”紫蘭曰：“妾有一片嬌心，誓不從碌碌人，今夜幸逢秀才，妾之所願也。願奉巾櫛，矢靡他適，秀才勿以妾爲賤，而但恐閨中玉花，不能容我。”子明笑曰：“我本鰥夫，豈有妬忌之玉花乎？”紫蘭答曰：“若如此，則真是吾家小姐之配匹也。”子明曰：“吾之行色狼狽，意外適逢娘子，豈敢望以閨中之小姐爲配匹乎？夜已深矣，願許暫憩，待曉而去。”子明以此誘之者，欲與紫蘭先給好緣，後圖小姐之計也。是夜，遂親紫蘭。(『임상국부자삼취기』, 50~51쪽)

63) 夫人使侍婢問曰：“秀才容兒，風彩，非凡常之人，必有事故而來此，願聞根腳。”子明曰：“豪俠男子，爲尋花柳，偶入別界，得罪於尊前，雖欲明其根腳，名家子弟，事體不可，不必多問，願賜罪責。”夫人曰：“偷入深閨，有此發惡，不言姓名，速付法司。紫蘭遜前曰：“彼公子，昨夜不得宿所，至於妾房，問其姓名，銀波橋任相國子子明，時爲翰林者也。”(『임상국부자삼취기』, 51~52쪽)

위의 인용문은 부인이 임자명에게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에 몰래 들어와 이렇게 발악하고 성명을 말하지 않으니 속히 사법관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옆에 위자란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임자명에게 궁지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었다. 부인이 알게 되어 옆에 있는 위운빙(魏雲娉) 소저가 문득 안색이 변하는데 부인이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고 물었다. 위운빙이 그 사람은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굳게 맹약을 정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부인이 깜짝 놀라 그 죄를 용서하였다. 나아가 이야기는 부인은 임자명의 전체가 뛰어난 것을 보고 더없는 기쁨을 느껴 사위로 삼을 위하여 위운빙의 어머니 정씨에게 찾아가 ‘이 결혼을 주선하여 위운빙과 자신의 미혼인 막내딸 정씨를 모두 임자명과 결혼시키겠노라’ 부탁하였다. 얼마 후에 친척들을 모아 성대하게 연석(宴席)을 베풀고 임자명은 두 부인을 맞아들였다.

임자명과 둘 부인 간에 결연 과정 속에서 위자란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임자명은 위자란을 통해서야 정부(鄭府)에 순조롭게 남게 된 까닭에 다음날에 위운빙과 정씨를 만나고 결혼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위자란의 도움이 없이 임자명이 정씨 집안에 머무를 수 없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 날에 두 부인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자란이 숙소에 주지 않았으면 임자명도 두 부인을 맞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위자란이 이 과정에서의 조력 역할에 대해 작품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에서 정씨는 임자명과 위자란이 동침한 일을 발견하여 위자란이 음탕한가며 많이 화나고 있었는데, 이때 위씨가 와서 정씨에게 위로움이나 설득한 말이 있었다. 그 말을 따르면 위자란 비록 음탕이지만 임자명이 그 날밤에 근심하고 당황하던 중 위자란이 그에게 숙소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들을 임자명과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권유하였다. 이를 통해 위자란은 스토리를 발전시키고 임자명은 순조롭게 두 부인과 결혼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조역할이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위자란의 조력자로서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위자란은 임자명과 하룻밤 맹세를 한 후로 인사(人事)가 변하고 시비로서 한 글자의 소식을 전할 길조차 영영 끊겨 마음으로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하루는 마음을 옥소로 불고 그 소리를 들은 임자명은 위자란을 불러 지난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위자란은 한무제(漢武帝)가 콩죽의 잊지 못한 은혜와 한신(韓信)이 백정에게 받은 잊지 않은 치욕 등의 비유를 통해 지난날의 임자명은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원망한 모습을 보이고 정당한 명분을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후사를 약속한 시비 위자란은 첩으로 들이지 않고 매물차게 버린다. 임자명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명분을 준다고 하였다.

이외의 위자란은 첩이 되는 과정에 많은 대화에서 처첩갈등을 느낄 수 있다. 처첩갈등은 표면적으로 보면 처와 첩의 갈등인데 실제적인 한 남자와 처와 첩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정씨는 위자란에 대한 불만한 태도는 인물들 간의 대화나 그의 행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위자란이 첩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위자란을 만난 직후에 정씨의 불쾌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임자명은 위자란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 전에 분명히 위자란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 왔는데 그 뒤에 위자란이 명분을 달라고 할 때 심지어 그를 요녀로 형용하였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정씨가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근래에 병이 났다 하더니 필시 상사병일 것이다.” 위자란이 황공(惶恐)하여 아뢰었다. “소비(小婢)가 어찌 상사병이 났겠습니까?” 정씨가 말하였다. “네가 음행으로 장부를 유혹했으매 부모님께서 아시면 반드시 중죄를 얻을 것이니 조심하고 조심하라.” 위자란이 혼비백산하여 사죄하고 물러났다. 이날 밤 한림이 초화당에 이르러 위씨와 조용히 이야기하였는데 위씨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첩이 들으니 장부(丈夫)는 삼처십첩(三妻十妾)이요, 사인(士人)은 일처일첩(一妻一妾)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림께서는 두 명의 처 이외에 옆에서 모시는 미녀가 없으니 첩들이 투기한다는 누명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참으로 괴이하다. 이 말은 필시 나를 조롱하는 말이로다.” 위씨가 말하였다. “소첩이 어찌 감히 장부를 조롱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들으니 한림께서 자란을 시첩(侍妾)으로 삼으려 하신다는데, 군자의 뜻을 여자가 어찌 감히 막으려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월을 끌어 자란이 마음에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정씨가 전도(顛倒)되어 용납하지 않을까 하고, 또 요녀(妖女)를 집안에서 취하여 정실(正室)의 마음에 불편한 바가 있게 될까 걱정스럽구려.” 위씨가 대답하지 않았다.<sup>64)</sup>

위자란은 시녀에서 첩으로 겪는 과정에서 정씨는 위자란에게 불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자란의 존재로 인해 많은 처첩갈등을 일으켰다. 정씨는 위자란과 임자명은 동침한 행동을 음행이라 여기고 위자란에게 원망하였다. 임자명과 위자란 처음 만날 때 임자명은 두 소저를 도모하기 위해 먼저 위자란을 유혹해 동침한 것인데 정씨는 위자란이 임자

64) 鄭氏怒曰: “汝近間稱疾, 必有思人之疾也.” 紫蘭惶恐白曰: “小婢豈敢有思人之疾乎?” 鄭氏曰: “汝以淫賁蠱惑丈夫, 父母若知之, 必得重罪, 操心操心.” 紫蘭魂飛魄散, 謝罪而退. 此夜翰林, 至楚和堂, 與魏氏從容談話, 魏氏低聲問曰: “妾聞丈夫三妻十妾, 士人一妻一妾. 翰林則二妻之外, 他無侍側之美女, 妾等未免妬忌之名.” 翰林曰: “恠哉恠哉! 此言必是嘲我之言也.” 魏氏曰: “小妾何敢有嘲戲丈夫之心哉? 今聞翰林, 以紫蘭欲定侍妾. 君子之意, 女子豈敢沮之. 至今迂延歲月, 以致紫蘭之心恨也.” 翰林曰: “鄭氏顛倒, 恐其不容, 亦恐妖女娶于家內, 使正室之心, 有所不平.” 魏氏不答. (『임상국부자삼취기』, 61~62쪽)



명을 유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위자란에 대해 훈계하였다. 나아가 임자명은 위자란을 요녀로 비유한 모습을 보면 그녀에 대한 임자명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임자명은 만약 위자란을 집안에서 첩을 들이면 정씨가 용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둘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근심하였다. 이것은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처첩갈등이다.

한편 처첩갈등 이외에 위자란에 대한 서술 중에 신분 계급의 차별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우선 정씨는 위자란이 임자명의 시첩을 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보면 느낄 수 있다. 위자란이 임자명의 첩이 되고 싶을 때 정씨는 마음이 평온치 않고 나타냈다. 정씨는 시녀가 자신 남편의 첩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위자란의 잘못으로 여긴다. 이를 통해 양반집에 아가씨가 신분적 차별에 대한 반응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정씨가 위씨와 같이 임자명의 부인이 되려 할 때는 아함과 여영을 언급하며 조화로운 면모를 드러내지만 시비인 위자란에 대해서는 상응된 모습을 보인다.<sup>65)</sup> 반면에 정씨는 임자명은 셋째 부인 경씨를 맞아들 때 위자란과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정씨는 마음속에 불쾌한 느낌이 있더라도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씨는 경씨에게 질투심을 띠지 않고 오히려 신분 계급에 대한 경멸이 없이 세 부인 화목하게 잘 지내고 살았다. 경씨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면 봉건사회 신분 차별의 위계성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임자명은 위자란에 대한 유사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처음부터 임자명과 위자란을 만나게 되고 위자란이 아름다운 외모를 보기 좋아서 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유혹하였다. 두 부인과 접촉하기 위해 위자란은 임자명에게 이 용당한 줄을 모른다. 어찌 보면 위자란은 오히려 피해자와 유사한 캐릭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임자명은 위자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위자란이 겨우 신분이 낮은 시비였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 전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은 위자란에 대한 역할 분석한 내용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위자란은 작품 서사구조 안에서 임자명은 순조롭게 두 부인과 결혼시킬 수 있는 조력자이다. 이는 서사적 전개에 의해 중요한 보조역할이라 할 수 있다. 위자란이 이 소설 안에 쪽에서 첩의 역할이고, 이로써 처와 첩의 대립을 통해 처첩모순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조선 시대에 한 남자가 이러한 처첩 문제 안에 표현하는 태도를 잘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씨와 임자명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상위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무시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면 저자가 위자란을 통해 당시 전통사회 신분적 계급의 문제를 반영했다.

65) 한익승,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서사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287쪽.

다음에 살펴본 인물은 임산추이다. 임산추는 임자명과 백구(白狗)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조선으로 들어와 새로운 임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임산추는 구체적인 역할 의미를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하루에 임자명은 중병이 들어, 장자(長子) 양원과 함께 산과 연못을 유람하며 풍경을 구경하여 답답한 마음을 풀고 산천을 유람하였다. 유람 중에 기질이 비상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만난 소년의 인도로 기린산(麒麟山) 추월동(秋月洞)에서 정공(鄭公)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몸에 병이 있어 명산을 두루 다니며 영약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주선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이 왕림하기 전에 미리 구해 두었소이다.” 이튿날 아침에 시동을 불러 화하산(花下山) 청려 선생(靑藜先生)에게 ‘창구(蒼狗)’를 빌려 달라’고 말을 전하도록 하니, 잠시 후 시동이 개를 끌고 왔다. 노인이 승상에게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두고 괴이하다 할 것이나, 다만 이 동물만이 능히 상공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오. 대개 이 개은 옛날 황제 시절에 생겨났던 동물이오. 자못 지식이 있어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상공께서 이 물건을 한 번 가까이 하시면[親狎] 모든 병이 절로 나을 것이오.”<sup>66)</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정공은 임자명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임자명의 온갖 약도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할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였다. 그것 바로 화하(花下) 정려선생(靑藜先生)에게 보내 ‘백구(白狗)’를 빌려와서 그것과 친압(親狎)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자명이 듣고 그 병이 비록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 세상에 퍼지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까 봐 걱정한 모습을 보인다. 정공은 임자명에게 만약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 밖에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 권했는데 임자명이 그 말대로 하여 이날 밤에 드디어 백구(白狗)를 친압하니 병이 쾌차하였다. 그 병을 완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임자명이 집으로 돌아오니 모친은 무양하고 온 집안이 평안하였다.

임자명에게는 10자 9녀가 있으니 장자(長子) 양원(陽元)과 차원(次元), 계원(季元), 연원(連元), 해원(海元) 등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높고 중요한 직위에 이르렀고 금관을 쓰고 옥대를 둘러 영화가 온 집안에 넘쳐흘렀다. 당시 사람들이 공경하고 중히 여기지

66) 丞相告曰: “賤生身有疾病, 周行名山, 欲得靈藥. 伏望先生, 能周旋否?” 老人笑曰: “丞相之病, 我已知之矣. 預丞相來臨, 先求得置矣.” 明朝, 呼侍童, 傳言於花下靑藜先生, 願借蒼狗而來, 須與牽狗而至. 老人謂丞相曰: 世人必以此爲怪, 而但此物, 能治相公之病矣. 蓋此物, 在昔黃帝時所生之物也. 頗有知識, 能治如此之病, 相公一親此物, 則萬病自差矣. (『임상국부자삼취기』, 79~80쪽)

않음이 없었다.

임자명이 기린산에 다녀온 지 10여 년이 지났으니 임산추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바로 백구가 낳은 아들이었다.

문지기가 갑자기 아뢰었다. “어떤 사람이 화하산에서 왔는데, 스스로 상공의 친아들이라고 하면서 들어와 배알하고자 합니다.” 승상이 깜짝 놀라 물었다. “내 본디 집 밖에 희첩을 두지 않았는데 어떠한 자가 망령되이 내 자식이라 칭하는가?” 승상이 그 통명(通名)하는 글을 보고 양 부인에게 들이니 부인들이 웃으며 말하였다. “괴이하고 괴이하다.” 승상이 말하였다. “혹 뜻밖의 일이 없지는 없으니 옛날에는 뱀 몸에 사람 머리를 가진 자도 있었고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자도 있었느니, 불러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그 사람을 부르니 그 사람이 뜰아래 서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집안사람들이 그 행동거지를 보매 승상과 흡사하였으니 대개 이 사람은 백구가 낳은 이였다. 상공이 마침내 그를 아들로 삼아 문하에 두었다.<sup>67)</sup>

임산추라는 사람이 찾아와 임자명과 만나는 장면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상야릇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서로 전하며 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였다. 임자명이 그 심한 모욕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임자명은 동국(東國) 외조부모의 제사가 끊어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매우 슬퍼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임산추를 동국으로 보내어 제사를 받드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도가 되리라 생각하였다. 의론하여 결정하고 행장을 꾸려 마침내 동국으로 보내어, 조선에서는 임자명의 아들이 되어 갑절이나 더욱 공경하고 중하게 여겼다. 임산추는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여 공을 세우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된 후에 누차 큰 공을 세워 위엄과 권세가 융성하고 명성이 온 나라에 진동하였다. 이후에 임산추는 8자 4녀를 낳아 조선에 새로운 임씨 가문을 번성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 임자명은 외조부모의 제사를 이루어지려고 임산추를 동국으로 보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임자명은 제사에 대한 매우 중시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작자는 고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 제례(祭禮)를 중시하던 전통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에 임자명은 자신의 신분이 승상인데 임산추를 그는 백구와 낳은 아들이고

67) 聞者忽告曰：“有人自花下山來，自稱相公之親子，欲入拜謁云矣。”丞相驚問曰：“我本無房外戲妾，何如者，妄稱吾子也？”丞相見其通名之書，納于兩夫人前，夫人笑曰：“恠哉恠哉！”丞相曰：“或不無理外之事，古者有蛇身人首者，或有人身牛首者，召見則可知矣。”即召其人，其人立於庭下，行四拜禮，家人見其舉動行止，恰似丞相，而蓋白狗之所產也。相公遂子之，置之門下。(「임상국부자삼취기」, 81~82쪽)

당대의 사람들이 임자명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기에 이른다는 표현은 결국 임산추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만약 임산추를 동국으로 보내면 외조부모의 제사를 이루어질 수 있고 임산추와 직면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서는 임산추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임자명과 백구의 결연에 대해 신성함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sup>68)</sup>

---

68)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73쪽.

## V.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여기에서는 앞에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임상국부자삼취기」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서사구조 적으로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인수교혼을 통한 독자들의 흥미 제고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주인공 아버지인 임홍의 대를 이은 아들인 임자명은 조선 사람인 주운화 소생으로 되어 있다. 임자명이 중병이 들어 막다른 지경에 몰릴 때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구와 친압하고 아들 임산추를 낳았다. 나아가 임자명의 아들 임산추는 조선으로 와서 임자명의 외조부인 주형선의 제사를 받들 뿐 아니라, 조선에서 임씨(任氏) 후손이 그 임산추로부터 번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69)</sup>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가는 백구와의 친압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백구와 친압을 해야 만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정공의 말에 대해 임자명 자신의 입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백구가 낳은 아들 임산추가 찾아와 임자명과 창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러한 기담을 서로 전하며 비웃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자명은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그리하여 임산추를 동국에 보내 외조부모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을 방도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 당시 독자들의 시선을 반영한다. 그런데 작가는 불편해하는 독자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작품의 사이사이에 그것을 삽입하여 다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작가가 독자에게 자신이 독자의 비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작품을 써야 했던 것은 이 작품이 작가에게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 그래서 치열하게 완성해야 하는 자기 서사라는 호소인 것이다.<sup>70)</sup>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가도 이러한 신화를 의식하여 ‘창구’를 황제 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창구’의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화시대와는 다른 조선 후기의 문화 권력 체계에서, 개와 인간의 교혼은 허용보다는 금기에 가까운 상상이

69) 양승민,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미국버클리대학교 소장 해제.

70) 김수연, 「육체의 경계 지우기 -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패러디와 자기서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204쪽.

었다는 점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와 동시기에 향유된 ‘오랑캐’ 설화나 ‘개와 동침한 여자’ 계열 설화를 보면, 개와의 교혼을 부정적이고 조롱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당시에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차용하여 주인공과 개의 교혼을 서사화한 것이다. 이것은 인수교혼 화소가 환기하는 신성성에 새로운 균열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71)</sup>

둘째, 남녀간 처음에 만남에서의 동침 화소이다. 남녀 결연 서사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결연 화소는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애욕을 일으켜 충동적이고 강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소는 윤리적이지 못하고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고소설의 결연 화소로 보편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고소설의 몇몇 작품에는 남성이 주도하는 첫 만남에서의 동침 화소가 특징적으로 삽입되어 있다.<sup>72)</sup>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임자명과 시비 위자란의 결연단계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임자명이 내심 기뻐하여 또 위자란에게 말하였다. “내 본래 풍경을 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절대佳人(絶代佳人)을 한번 만나보고 싶을 뿐이니, 그럴 수 있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백년간약(百年佳約)을 맺으려 하네. 오늘 우연히 남자를 만나니, 옥 같은 얼굴과 아름다운 모습이 실로 내 맘에 꼭 드는구려. 오늘 청산녹수(靑山綠水)를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컨대 그대를 버리지 않겠소.”<sup>73)</sup>

임자명은 어느 날 정씨 집안 잔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에게 끌려 몰래 담장에 넘어 들어갔다가 정씨와 위씨의 미모에게 반하였는데, 정씨 집안에서 한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시비인 위자란에게 들킨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임자명은 미색만 탐한 게 아니라 위자란과 먼저 좋은 연분을 맺고 이후에 소저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임자명은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위자란을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는다.

처음 만남에 동침하는 화소는 「주생전(周生傳)」의 주생(周生)과 선화(仙花)의 결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몰락한 신분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전당의 기생 배도(俳桃)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주생이 승상의 딸 선화를 보고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 욕망은 순수한 연애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승상 집의 화려한 모습에 주생은 압도된 상태였고, 그 가운데 승상부인과 선화 배도가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담소 나누는 것을 엿보며 선화의 미모와 자태에 빠져들었다. 즉 외형적인 부귀와 화려한 미모에 반한 감정

71) 앞의 논문, 202쪽.

72) 김종근,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265쪽.

73) 子明內自歡喜, 又謂紫蘭曰: “我本不貪風景, 只欲一見絶代佳人, 不計貴賤, 以結百年之好緣, 今日偶逢娘子, 玉顏, 英彩, 實叶我願. 今日以靑山, 綠水爲誓, 誓不棄汝.”(「임상국부자삼취기」, 50쪽)

이므로 연장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으며, 결핍의 존재로서 가지는 부귀에 대한 동경과 욕망이라고 보아야 한다.<sup>74)</sup>

주생은 이미 배도의 외모를 사랑하게 된 터에 또 그녀가 지은 시를 보자, 마음이 미혹되어 온갖 상념이 다 일었다.<sup>75)</sup>

인용문을 보면 주생에게는 여성 주인공의 외모가 시적 재능보다 더욱 우선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생의 입장이 배도에게 접근하는 방법 또한 매우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균은 첫 만남에서의 동침 화소는 고소설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전개된다고 하였다. 먼저 남성이 미모와 문벌을 겸비한 여성을 훑쳐보고 욕망을 느껴서 즉흥적으로 여성의 침실로 난입하여 동침을 이루는 직접적인 형태의 화소이다. 초기의 애정소설인 「주생전」의 주생과 선화의 결연 서사에 삽입된다. 직접적인 강탈을 통한 동침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삽입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었다. 다른 경우는 이런 직접 동침 화소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에게 욕망을 느낀 남성이 여복으로 변장하여 여성과 같은 방에서 기거하면서 밤중에 남성임을 밝히고 동침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교감을 이루기는 하나 육체적인 동침은 윤리적인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여 신물을 나누며 훗날에 기약하는 경우이다.<sup>76)</sup> 「임상국부자삼취기」에 임자명과 위자란의 결연 서사는 바로 두 번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종합해 보면,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적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수교혼을 통한 독자들의 흥미 제고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서 임자명의 병을 고친 백구는 민족신앙(民族信仰)에서 벽사(辟邪)와 치유(治癒)의 능력을 상징하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 설화에서도 백구는 기이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7)</sup> 임자명과 백구의 결합은 고전소설에서 매우 보기 드문 서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수교혼 화소는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자는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창작했다는 것을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

74)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268쪽.

75) 生既悅其色, 又見其詩, 情迷意惑, 萬念俱灰.(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39쪽.)

76)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275쪽.

77)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66쪽.

분했던 작품으로 보인다.

둘째, 남녀간의 만남과 동침 등의 결연 화소이가. 작품 안에 위자란이 임자명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교감을 이루기는 하나 육체적인 동침은 윤리적인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여 훗날에 기약하는 과정에서 동침한 것이다. 작자는 임자명을 풍류남자의 이미지로 포장하고 재자가인류 소설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재자가인류 소설의 영향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으로 짐작된다.



## VI. 결론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일반인은 물론 고전소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품에 속하며,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작품의 서지와 경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검토한 뒤에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결연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소설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작품의 경계를 서술하였다. 이 작품은 작가 및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는 한문소설로, 선행 연구에서 간략히 서지 사항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필자가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은 현재는 한문본밖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문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한편 「임상국부자삼취기」의 경계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작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먼저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았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중국의 명(明)나라 건국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그 당시 역사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정난지변과 관련된 실존 인물이 작품에 보이는데 먼저 살펴본 인물은 주인공 임홍(任弘)이다. 임홍은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중국 명나라 영락 황제의 신하이고 연왕(燕王)의 중용을 받았다. 연왕이 ‘정난(靖難)’을 일으켜 임홍이 공을 세웠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임홍에 해당하는 인물은 주능(周能)이라 추측된다. 주능의 자는 사홍(士弘)이고,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임홍은 명나라의 주능(周能)로 추정된다. 임홍(任弘)이라는 이름과 주능의 자 사홍(士弘)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능은 ‘정난지변(靖難之變)’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임홍은 실존 인물 주능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은 작품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일치하는 인물인 장옥(張玉)으로, 그는 명 태조 홍무제 주원장의 총신(寵臣) 중 한 명이었다. 정난지역(靖難之役) 때 북평 구문을 탈취였고 연군선봉(燕軍先鋒)이 되었다. 살펴본 인물은 요영충(姚英忠)이다. 요씨의 할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영충(姚英忠)은 명나라 개국공신인 실존 인물 요영충(廖永忠)이다. 그는 파양호(鄱陽湖) 전투에서 탁월한 공을 세웠고, 덕경후(德慶侯)로 봉해졌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은 서

문수장(西門守將) 이경룡(李慶龍)이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는 건문제 때에 중용되어 인물 이경룡(李景隆)이다. 정난 때 주체를 토벌하러 갔다가 도리어 연전연패하고, 주체가 남경(南京)을 압박하여 공격하자 금천문(金川門)에서 적을 막았으나 결국 지키지 못했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 수용된 정난지변 및 작품 속 등장 인물과 실존 인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요영충(姚英忠)과 이경룡(李慶龍)의 경우, 작품에서 한자를 잘못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국문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이므로 분명히 그 당시 존재했던 소설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먼저 조선 시대 소설 가운데 중국의 정난지변(靖難之變)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임상국부자삼취기」 역시 정난지변을 수용한 고전소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아들 임자명은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데 세 부인 사이에 갈등이 일정 부분 감지되는데, 여기에서 가정소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국부자삼취기」는 처첩형 가정소설과 유사하지만 갈등이 구체적으로 다 확산되지는 않는다.

제4장에서는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주인공인 임홍·임자명 부자가 세 부인을 맞이하는 결연의 양상을 살펴보았고, 기타 주변 인물들의 작품 내적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임홍(任弘)과 요씨(姚氏)·주운화(周雲華)·설씨(薛氏)의 결연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홍은 비록 세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시종(始終) 첫 번째 부인 주운화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는 결혼하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이별을 당하고 그리움의 고통을 참아냈지만 죽을 때까지 주운화를 만나지 못했다. 임홍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했던 부인과는 행복한 결말이 되지 못했다. 한편 작가는 임홍의 두 번째 결연 과정을 통해서 주운화처럼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성격의 매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임홍과 주운화의 결연에는 신분이나 존재의 차별보다 국가와 민족 간 차별 양상이 부각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운화는 임홍을 상국(上國)의 귀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외국의 천한 여자라고 불렀다. 주운화는 국가 간 차별에서 오는 또 다른 불평등한 지위를 인식하고, 임홍과의 이별을 사람과 귀신의 만남만큼이나 절대적으로 결합 불가능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서로 다른 국적이나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며, 이런 문제들이 사랑의 행복한 결말이 불가능함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임자명(任子明)과 위운빙(魏雲嬋)·정씨(鄭氏)·경씨(慶氏)의 결연 서사를 보면 임자명과 셋째 부인 경씨 사이에 다른 두 부인과 달리 갈등이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쉽게 결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자명은 비록 부인 세 명을 맞아들였는데도 첫째 위부인과 둘째 정부인은 거의 같은 역할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위부인과 정부인은 서로 부조하고 어떤 갈등도 없이 화락하게 지낸 사이라 할 수 있고 작가가 ‘아황(娥皇)·여영(女英)’전고를 사용하여 그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두 사람은 셋째 부인 경씨를 위해 합심하여 주부인을 설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두 부인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임상국부자삼취기」에는 이들 중심 인물 이외에도 여러 보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위자란(魏紫蘭)과 임산추(任山秋)를 주목하여, 이들의 작품 내적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위자란은 작품 속에서 임자명을 두 부인과 순조롭게 결합하게 만드는 조력자로, 서사 전개에 의해 중요한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위자란은 첩이기 때문에 처첩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처첩 갈등 이외에도 위자란에 대한 서술을 보면 신분 차별의 모습이 드러난다.

임산추는 임자명과 백구(白狗)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조선으로 들어와 새로운 임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에서는 임산추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의 통합을 모색하는 한편 임자명과 백구의 결연에 대해 신성함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서사적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수교혼을 통해서 독자들의 흥미 제고이다. 임자명과 백구의 결합은 고전소설에서 매우 보기 드문 서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수교혼 화소는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임상국부자삼취기」의 작자는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창작했다는 것을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던 작품으로 보인다. 둘째, 남녀간 처음에 만남에서의 동침 화소이다. 위자란은 임자명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교감을 이루기는 하나 육체적인 동침은 윤리적인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지만 훗날을 기약하는 과정에서 동침한 것이다. 작자는 임자명을 풍류남자로 형상화하였는데, 여기서 재자가인류 소설의 특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국부자삼취기」는 다른 고전소설에서 찾아보기 독특한 서사를 보여주는바, 이것이 「임상국부자삼취기」의 독특한 특질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任相國父子三娶記」, (버클리대 소장본, 5973.49.2461)

조재현·엄태식 역주, 「임상국부자삼취기」(미출간본).

『明史』, 張廷玉, 中華書局, 1974.

### 저서 및 논문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古小說 研究』 41, 한국 고소설학회, 2016.

김수연, 「육체의 경계 지우기 -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의 패러디와 자기서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김종균, 『남녀 애정 결연 서사 연구』, 박이정, 2005.

신해진, 「내성지의 창작동인 탐색」, 『국학연구론총』 1, 태민국학연구원, 2008.

손종태, 「奈城誌의 창작배경과 역사담론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갈등구조와 서포의 현실인식」,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이수봉, 「인물론」, 『한국고소설론』, 한국고소설학회 편,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양승민, 「임상국부자삼취기(任相國父子三娶記)」해제,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조재현, 「임상국부자삼취기 연구 - 시조설화적 서사구성과 다문화가정을 통한 가문계승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최윤희, 「육염기 연구」, 『고소설 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의승,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서사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7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20.